

〈성동구 성수동1가〉

14.8억 단독주택 보유세 252만원 더 낸다

단독주택 공시가 4.47% 인상
서울 6.82%로 가장 많이 올라
동작구 10.61%로 최대폭 상승
울산·경남·제주는 오히려 하락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4.47% 올랐다. 지난해 상승폭(9.13%)보다 낮은 수치이나 2016년(4.15% 상승) 이후 줄곧 4% 넘게 오르고 있어 집주인들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중저가 주택의 현실화율이 더 높았던 역전 현상이 해소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전국 평균 4.47%, 서울은 6.82% 올렸다고 22일 발표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와 종부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와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국내 최고가 표준단독주택인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서울 한남동 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7억1000만 원(2.6%) 오른 277억1000만 원이었다. 2위는 이해옥 대림그룹 회장의 서울 삼성동 집으로 11억8000만 원(7.1%) 상승한 178억8000만 원이었다. 반면 가장 저렴한 주택은 전남 신안군 흑산면에 있는 단독주택으로 공시가격이 170만 원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82%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17.75%보다는 상승폭이 줄었다. 광주(5.85%)·대구(5.74%) 등은 평균치를 웃돈 반면, 제주(-1.55%)와 경남(-0.35%), 울산(-0.15%)은 하락했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예년 수준에 그쳤지만 고가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고가 주택일수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오른 데다 세금 부과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90%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 동작구가 10.61%로 유일하게 두 자리 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동구가 8.87%로 그 뒤를 이었고, 마포(8.79%)·영등포(7.89%)·용산구(7.5%)도 상승률이 높았다. 경기도에선 과천시 8.05%로 많이 올랐다.

실제 지난해 14억8000만 원이었던 성동구 성수동1가 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16억3000만 원으로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도 675만960원에서 927만6240원으로 37%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은 53.6%로 지난해보다 0.6%포인트(P) 올랐다. 고가 주택일수록 현실화율도 더 높아졌다. △9억~12억 원 53.4% △12억~15억 원 53.7% △15억~30억 원 56.0% △30억 원 초과 62.4%다. 그동안

마포구 단독주택도 공시가격이 지난해 10억6000만 원에서 올해 11억4800만 원으로 오르면서 보유세가 361만2000원에서 447만9000원으로 24% 정도 늘어난다.

본지 보도 '그들의 세계, 지역농협' '씨티 언론인상' 수상

본지가 지난해 보도한 '그들의 세계, 지역농협' 시리즈(2019년 8월 7일 1·3면 기사 참조)가 2019년 씨티 대한민국 언론인상을 수상한다. 씨티 언론인상은 1993년 시작돼 국내 경제·금융 분야에서 최고 권위의 상으로 인정받고 있다.

과 경제전반 부문 으뜸상 1팀, 금융시장 부문 으뜸상 1팀, 소비자금융 부문 으뜸상 1팀 등 총 4개 팀을 선정했다. 심사위원단은 이투데이 수상작에 대해 "100만 농가와 지역농협에 만연한 구조적 문제를 심도 있게 파헤쳤을 뿐 아니라 농협개혁을 위한 해법까지 제시한 점이 돋보였다"고 밝혔다.

씨티 언론인상 심사위원회는 22일 금융부문 으뜸상으로 이투데이의 지역농협 시리즈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상자는 나경연·곽진산 기자다.

대상은 한국경제의 '수확이 세상을 바꾼다' 시리즈가 차지했다. 경제전반 부문 으뜸상에는 동아일보의 '제로 이코노미 시대 변화야 살아남는다' 시리즈가, 소비자금융 부문 으뜸상엔 서울신문의 '서민과 함께 포용적 금융' 시리즈가 각각 선정됐다.

학계 및 언론계의 경제·금융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경제전반과 금융시장, 소비자금융 등 3개 부문에서 응모된 29편의 기사를 1·2차에 걸쳐 심사했다. 그 결과 전체 대상 1팀

정용욱 기자 dragon@



설렘 안고 고향으로 민족대명절 설 연휴를 이틀 앞둔 22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KTX 승강장에서 시민이 한복을 차려입은 어린이를 안고 즐거운 표정으로 귀성길에 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연휴 귀성길 정체는 설 전날인 24일 오전이, 귀경길은 설 당일인 25일 오후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휴 기간 이동 인원은 3279만 명으로, 설날인 25일 하루에만 최대 825만 명이 이동할 전망이다. 뉴스시스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현대차 삼성동 GBC 3월 '첫삽' 뜬다

강남구 "안전관리계획 검토"…국방부 최종합의도 내달 마무리
한전부지 매입 5년 만에…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는 6월 착공

현대자동차의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가 3월 첫삽을 뜬다. 2014년 9월 부지 매입 이후 5년여간 인허가 문제 등 우여곡절을 겪은 현대차 GBC 신축 준비 작업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될 전망이다.

려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 관계자는 "시설공단의 안전관리 계획 단계가 끝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GBC 사업 규모가 워낙 커 추가 검토사항이 생길 수 있다"면서도 "일부 마무리 기간을 포함해도 3월이면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2일 강남구에 따르면 GBC 건립은 서울시 굴토 및 구조 심의를 마친 후 행정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안전관리계획 검토가 진행 중이다. 더불어 작전제한 사항과 관련한 국방부와의 최종 합의도 2월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GBC 사업의 변수로 꼽힌 작전제한 사항 관련 문제는 일단 착공하고 GBC, 크레인 등 구조물 높이가 건물 절반인 260m에 이르기 전까지 해결하기로 한 기본합의가 유지된다. 이 관계자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문제 측면에서 정부,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강남구도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절차상 큰 문제만 없다면 3월, 늦어도 4월에

현대차그룹은 10일 GBC 착공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는 통상 20일이면 완료되지만 설 연휴 기간과 사업 규모를 고

현대차 사상 첫 '100兆 클럽' 가입

신차·SUV효과로 작년 영업이익 52%↑...기아차는 74% 급증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연 매출 100조 원을 돌파하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기아자동차 역시 SUV 판매 호조와 우호적 환율 여건에 힘입어 기대 이상의 실적을 냈다. ▶관련기사 9면

영업익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현대차의 지난해 판매 대수는 전년 대비 3.6% 감소한 442만5528대를 기록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105조7904억 원, 3조6847억 원으로 각각 9.3%와 52.1% 늘었다. 현대차는 지난해 3분기 세타2 엔진 관련 품질 비용 등으로 6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지만, 신차와 SUV 등 고수익 제품 출시와 우호적 환율 효과로

현대차는 올해 글로벌 시장 판매 목표를 457만6000대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현대차는 지난해 출시한 GV80의 성공적 시장 진입과 아반떼, 투싼 등 주력 차종의 풀체인지 모델 출시로 판매 동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 인센티브 전략과 친환경차 수익성 개선에 집중할 방침이다. 현대차는 올해 영업이익을 5%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기아차 역시 판매 대수는 줄었지만, 매출과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누적 판매 대수는 전년보다 1.4% 감소한 277만2076대에 머물렀다. 반면,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7.3%, 73.6% 증가한 58조1460억 원, 2조597억 원을 달성했다.

현대·기아자동차 2019년 경영 실적

105조7904억 원			
매출	96조8126억 원		
현대차	2018년	2019년	비고
영업이익	2조4222억 원	3조6847억 원	52.1%
차 판매	458만1919대	442만5528대	-3.6%
매출	54조1698억 원	58조1460억 원	
기아차	2018년	2019년	비고
영업이익	1조1575억 원	2조597억 원	73.6%
차 판매	281만2293대	277만2076대	-1.4%

2019년 실적보다 4.9% 많은 296만 대로 잡았다. 기아차는 올해에도 신차 출시가 집중되는 '골든 사이클'이 지속되는 만큼 신차를 앞세워 세계 시장에서 판매 확대를 추진하고 수익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유창욱 기자 woogi@

“아버지의 땀·열정 떠올리며 역경 극복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롯데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분이셨습니다. 항상 새로운 사업 구상에 몰두하셨고, 성공과 실패를 모두 떠안는 책임감을 보여주셨습니다. 역경과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아버지의 태산 같은 여정을 떠올리며 길을 찾겠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22일 오전 7시 서울 롯데월드몰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린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영결식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유가족과 롯데그룹 경영진, 외부 인사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침통한 얼굴로 인사말을 읽어갔다.

신 회장은 “아버지는 타지에서 고난과 역경 끝에 성공을 거두셨을 때도 조국을 먼저 떠올리셨다”며 “기업이 조국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평생 실천하신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기업인의 사명감과 책임을 배웠다”고 말했다. 이어 “한마디로 정말 멋진 분”이라면서 “오늘의 롯데가 있기까지 아버지가 흘린 땀과 열정을 저는 평생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영결식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아들 신정열 씨가 영정을 모시고, 차

유가족·경영진 등 1400명 참석 “평생 조국 발전 생각하셨던 분 기업인의 사명감·책임 배워” 신동빈 회장, 엄숙함 속 인사말 운구차, 롯데타워 돌아 울산으로

남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아들 신우열 씨가 위패를 들고 입장하며 시작했다. 신 명예회장의 부인인 시게미츠 하츠코 여사와 신 전 부회장, 신 회장,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이 영정을 뒤따랐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행사는 △고인에 대한 묵념 △약력 소개 △추도사 △추모 영상 상영 △헌화 △유족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추도사를 한 명예장례위원장 이흥구 전 국무총리는 “당신은 참 위대한 거인”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총리는 “우리 국토가 피폐하고 많은 국민이 굶주리던 시절



신동빈(왼쪽)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22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운구차 옆을 지나가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당신은 모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이 땅에서 사업을 시작했다”며 “일생을 오로지 기업에만 몰두하셨으니 이제는 무거운 짐 털어내시고 평안을 누리시라”며 고인의 명복을 기원했다.

해외 출장 중이어서 직접 참석하지 않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사회자가 대독

한 추도문에서 “창업주는 우리나라가 전쟁의 폐허 위에서 국가 재건을 위해 몸부림치던 시절 조국의 부름을 받고 경제 부흥과 산업 발전에 헌패히 나섰다”며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견인했던 거목, 우리 삶이 어두웠던 시절 경제 성장의 앞날을 밝혀주었던 큰 별이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추도 영상을 통해 신 명예회장의 생전 모습이 상영됐다. 1921년생인 고인은 와세다대학교에서 화학과를 전공한 후 1948년 10명의 직원과 함께 일본에서 주식회사 롯데를 설립했다. 상사와 부동산, 물산, 유통 분야로 확장해 일본의 10대 재벌 기업으로 키운 후 1965년 조국으로 돌아온 후 재계 5위 그룹으로 일귀년 과정이 화면으로 흘러나왔다.

장남인 신동주 전 부회장은 하객들에게 “아버지는 자신의 분신인 롯데그룹 직원들과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 오셨다”면서 “선친의 발길을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아갈 것이며 창업주 일가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인사했다.

영결식 후 운구 차량은 롯데월드타워를 한 바퀴 돌고 떠났다. 롯데월드몰과 함께 있는 잠실 롯데월드타워(123층, 555m)는 국내 최고층 빌딩으로 신 명예회장에게는 평생의 숙원 사업이었으며, 소공동 롯데호텔과 함께 신 명예회장의 말년의 거주지이기도 하다. 장지는 울산 울주군 선영이다. 남주현 기자 jooh@

영결식이 롯데월드타워서 열린 까닭은



22일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장례행렬이 영결식 후 장지로 떠나고 있다. 사진제공 롯데그룹

‘평생의 꿈’ 돌아보고 고향서 영면

수익성 등 내부 반대 무릅쓰고 부지 매입 30여년 만에 건립 고인의 관광산업 의지 현실화

22일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영결식이 열린 장소는 롯데월드타워이다. 이날 영결식을 마친 운구차가 롯데월드타워 주변을 한 바퀴 돈 후 장지로 향했다.

롯데월드타워는 신 명예회장의 뜻이 이뤄낸 결과물이다. 롯데월드타워는

555m, 123층 규모의 국내 최대 마천루이자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건물이다.

처음 부지를 매입한 것은 1988년. 20년 이상 정부의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방치됐고 수익성에 대한 내부 반대도 만만찮았지만, 신 명예회장은 롯데월드타워 건설을 포기하지 않았다.

단돈 83엔을 들고 일본으로 건너가 한국과 일본에서 기업을 일구고 롯데그룹을 연 매출 100조 원, 재계 5위의 반열에 올려놓은 고인의 영결식 장소로 롯데월드타워가 선정된 이유 역시 생전에 마지막으로 공을

들인 장소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여곡절 끝에 신 명예회장의 꿈이 현실화하기 시작한 것은 2011년 롯데월드타워의 건축 허가가 승인되면서부터다. 부지를 매입한 지 30여 년, 롯데 창립 50주년이 되던 해인 2017년 신 명예회장의 숙원이던 롯데월드타워가 문을 열었다.

자원이 부족한 국내 현실을 감안해 일찍부터 관광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해 온 신 명예회장은 롯데백화점, 롯데월드, 롯데호텔 역시 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고인의 의지로 탄생했다. 롯데월드타워

는 관광산업을 키우겠다는 신 명예회장의 의지를 완성하는 화룡점정으로 꼽힌다. 생전 인터뷰에서 신 명예회장은 “남은 인생을 걸고 세계적인 관광시설을 만들겠다. 세계에 자랑할 만한 건축물을 조국에 남기려는 뜻밖에 없다”고 말했다는 정도다.

롯데월드타워는 지난해 기준 1억 명이 찾는 한국의 명소이자 취업 유발인원 2만 명, 연간 4조3000억 원 규모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는 한국의 대표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

신 명예회장은 잠시나마 이곳에서 기거하기도 했다. 그러나 장남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신 명예회장의 거주지를 소공동으로 옮길 것을 건의했고 법원이 이를 수락하면서 롯데월드타워를 떠나야 했기 때문이다. 유현희 기자 yhh1209@

롯데그룹 임직원 일동
故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주의 상례에
정중한 조의를 베풀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부인 시게미츠 하츠코
아들 신동주 신동빈
딸 신영자 신유미
며느리 조은주 시게미츠 마나미
배상

인사 말씀
이번 고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주의 상사시에
깊은 애도와 조의를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분들을 일일이 찾아뵙는 것이 도리어 오나 아직 황망중에 있어
우선 지면을 빌려서나마 머리 숙여 인사를 드립니다.
2020년 1월 23일 목요일

가혹한 시련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힘겨운 삶에 지친 이들을 위한 철학 처방전!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철학이란,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인생 속에만 있다”

쇼펜하우어, 헤르만 헤세, 조르주 퐁세, 장 지크 루소, 버트런드 러셀

역사 속 철학자와 문학가의 실면만 아니라 정신과 의사의 저자의 풍부한 임상 경험을 토대로 엮어낸,

철학을 바탕으로 바꾼 사람들 이야기

394페이지 | 148x216 | 15,000원

<12억~15억>

마용성 '보유세 폭탄'... 고가주택 공시가 10% 이상 상승

서울 9억 초과 주택에 상승분 집중
건보료·연금 등 조세부담 상승 예고
"아파트 공시가 더 큰 폭으로 오를 것
다주택자 세 부담, 세입자 전가 우려"

#1. 대기업 임원 출신인 A씨는 2년 전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다가구주택(단독주택) 한 채를 마련했다. 지난해 A씨 집의 공시가격은 8억9300만 원이었다. 1주택자인 A씨는 지난해 보유세로 256만 원가량을 냈다. 올해 그의 주택 보유세 부담은 그보다 22만 원가량 늘어날 예정이다. 여기에 그동안 안 내던 종합부동산세도 10만 원가량 포함돼 있다. A씨 집의 공시가격이 9억2666만 원으로 올라서다.

#2.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에 단독주택을 보유한 B씨의 부담은 더 큰 폭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14억8000만 원이던 B씨 집의 공시가격은 올해 16억3000만 원으로 오른다. 보유세 부담은 약 675만 원에서 927만 원으로 250만 원 넘게 늘어난다. 공시가격 상승과 종합부동산 세율이 겹치면 서 세 부담이 더욱 커졌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표준단독주택은 각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에 따라 4월 발표하는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오름폭도 달라지는 것이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적으로 4.47%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 공시가격이 9억 원 이상이었던 고

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주택 보유세 변화 (단위: 원)

종류(연면적)	상승률			
	성동구 성수동1가	강남구 논현동	동작구 상도동	은평구 불광동
2019년 공시가	1,480,000,000	3,080,000,000	893,000,000	420,000,000
2019년 보유세	6,750,960	27,855,360	2,565,960	892,800
2020년 예정 공시가	1,630,000,000	3,227,224,000	926,666,100	433,944,000
2020년 보유세	9,276,240	36,071,466	2,794,829	929,602
보유세 증가(상승률)	2,525,280 (37.4%)	8,216,106 (29.5%)	228,869 (8.9%)	36,802 (4.1%)

서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단위: %, 2020년 기준)



가주택의 오름폭이 컸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9억~12억 원이었던 곳은 7.9%, 12억~15억 원이었던 곳은 10.1% 공시가격이 올랐다. 지역별로 봐도 서울(6.82%)과 광주(5.85%), 대구(5.74%) 등 고가주택이 많은 지역에서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높이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조세 부담 형평성을 바로 잡겠다는 게 명분이다. 지난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사상 최대 폭인 9.13% 올린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국토부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55% 선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53.0%)보다 2.0%포인트 높다. 특히 시세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상승률을 높여 잡기로 했다.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주택 보유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늘어난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관련 세제는 물론 건강보험료나 연금 등을 매기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함영진 지방 빅데이터 랩장은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인 삼성·논현·방배·한남·이태원·성북동 등지의 고급 단독주택

이나 경기도 판교·위례·광교·과천시 일대 단독주택지에서 조세 부담이 보다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시가격 상승은 단독주택에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현실화율을 높일 것이라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제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는 69.1%다. 특히 시세 15억~30억 원 이상, 30억 원 이상 공동주택은 각각 현실화율 75%, 80%를 목표로 잡았다.

김은진 부동산 114 리서치팀장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은 정부가 올해도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

해 나가겠다는 신호다"라고 해석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아파트 공시가격은 단독주택 공시가격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이 오르고 주택 보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면 주택 매수심리가 위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안 부장은 "12·16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종부세 인상 등에 따른 세금 부담 증가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보유세 부담을 계속 늘릴 텐데 매수세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김 팀장도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며 "주택 매수를 망설이는 심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매수 절벽"과 별개로 공시가격 상승이 주택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우려하는 전문가도 적지 않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는 "공시가격은 시세보다 낮다는 인식이 많다"며 "이런 인식이 한꺼번에 바뀌지 않는 이상 공시가격이 오르면 시세도 덩달아 오르게 된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공시가격이 올라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면 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평균 웃도는 마포·광진·동작·서초구 집주인들 "공시가 낮춰달라" 아우성

대구 수성구에선 공시가 상향 요청

서울 25개 자치구 중 일부 지역에서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낮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이달 7일까지였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의견제출 기간에 서울 서초·마포·광진·동작구에서 공시가격을 낮춰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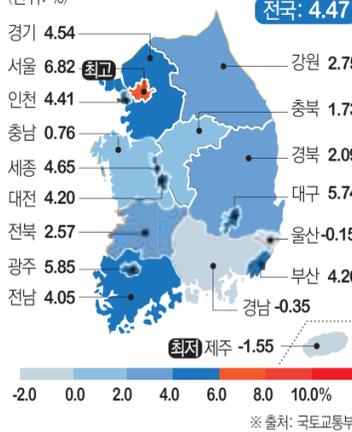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 자치구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보면 동작구가 10.61%로 서울 내에서 가장 높았다. 서초·마포·광진구는 각각 6.67%, 8.79%, 7.36%로 조사됐다. 서초구를 제외하고 모두 서울 전체 상승률(6.82%)을 웃도는 수치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작년보다 대폭 낮아졌다. 지역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대비 △강남구 35.01→6.38% △서초구 22.99→6.67% △송파구 13.27→6.82% △강동구 9.79→7.23%로 조사됐다.

반면 공시가격을 올려달라고 요청한 곳은 대구 수성구에서 나왔다. 수성구 전체 공시가격을 인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아닌 특정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주변보다 낮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상향 조정을 요청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 전체로 공시가격을 높여달라고 요청해 온 곳은 없었다"며 "세금 부담 때문에 공시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요인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견 제출 기간에 국토부에 접수된 의견은 1154건으로 작년 1599건보다 28%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감소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 21일까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내역을 공개하고 다음 달 2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 기간에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0일에 최종 공시한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 맡는다.

위원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부 기관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 공무원과 국토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이다. 민간위원 자격으로는 대학에서 토지·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이 해당한다.

서지희 기자 jhsseo@

오늘의 체지방 관리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100% 유기농 녹차를 직접 재배합니다

녹차카테킨은 주원료인 녹차의 질이 제일 중요하니까, 국내산 녹차를 직접 재배합니다 독자적인 AP 녹차연구기술의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현대인의 문제적 식습관으로부터 체지방 감소와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루 세 정 건강한 습관입니다

특허받은 녹차카테킨으로 한국인 건강맞춤

고열량식이 섭취로부터 체지방 관리
메타그린 녹차 카테킨이 고열량, 고탄수화물 식단이 잦은 한국인의 체지방 관리를 도와 대사 건강을 케어합니다

대사 건강을 위한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메타그린의 녹차추출물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약처 인정 기능성 원료로 믿고 섭취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세포 대사를 유지하는 항산화 작용
녹차추출물과 비타민C를 함유, 불규칙한 생활습관으로 생성되는 유해산소로부터 대사를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유튜브에서 바이탈뷰티를 검색하세요

100% 유기농
국산 녹차
오실록 농장 직접 재배 관리



제품상담
구매문의 | 080-023-5454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 www.amorepacificmal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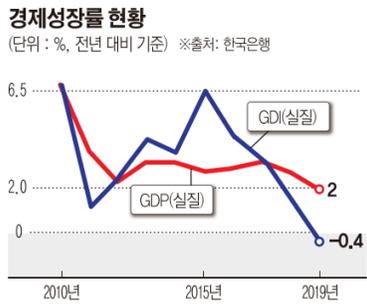
바이탈뷰티

재정 쏟아 '2% 성장'... 1인당 국민소득 1400달러 ↓

정부 1.5%P 성장기여... 민간은 0.5%P에 그쳐
실질 국내총소득 0.4%... IMF 이후 첫 '뒷걸음'
"소주성 정책 쏠려 성장률 대응 적기 놓쳐" 비판도

지난해 경제성장률(실질 국내총생산(GDP) 기준)이 2%대에 턱걸이했다. 잠재성장률(2.5~2.6%)을 밑도는 수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이후 최저치다. 반도체 부진 등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로 국내총소득(GDI)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뒷걸음쳤다. 22일 한국은행은 지난해 실질 GDP가 전년보다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9년(0.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출항목별로는 정부소비 증가세가 전년

5.6%에서 6.5%로 확대된 반면, 민간 소비는 2.8%에서 1.9%로, 수출은 3.5%에서 1.5%로 증가 폭이 둔화했다.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도 각각 3.3%, 8.2% 감소하며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성장기여도를 주체별로 보면 정부는 1.5%포인트(P)를 기록해 2009년 2.3%P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면 민간은 0.5%P에 그쳤다. 항목별로 내수는 1.2%P, 순수출은 0.9%P로 각각 2012년(0.6%P)과 2018년(-2.0%P) 이후 최저



치를 기록했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민간소비와 투자가 개선 조짐을 보이는 것은 긍정적인 요인"이라면서도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인구정책과 생산성 향상 등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은은 지난해 저성장과 저물가

에 원화약세가 겹치면서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018년 보다 약 1400달러 줄어든 3만2000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의 호주머니 사정을 보여주는 실질 GDI는 0.4% 감소했다. 이 같은 감소세는 1998년 7.0% 감소 이후 처음이다. 반도체 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물가 하락이 유가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하락보다 컸던 탓이다. 민간 연구기관들이 지난해 성장률을 1%대로 예상했던 점을 고려하면, 2%대 성장률을 유지한 것 자체가 나름의 '선방'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4분기(10~12월) GDP가 전기보다 1.2%(전년 동기 2.2%) 늘면서 2017년 3분기(1.5%)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여도 측면에서 정부가 1.0%P를 기록해 성장률을 견인했다. 이에 대해 소득주도 성장에 쏠린 경제정책

으로 인해 성장률 둔화에 대응할 적기를 놓쳤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구조적으로 성장의 힘이 뚜렷이 하락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제조업보다 서비스업, 수출보다 내수가 중요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 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단기적인 대책으로 성장세를 반등시키기엔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부가 재정을 활용해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기존에 성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은 많지 않았던 것 같다"며 "주로 복지나 분배 쪽이었는데, 이로 인해 재정의 경기부양 효과가 제한적이지 않았나 싶다"고 지적했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세종=김지영 기자 jye@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주재한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김 차관의 발언을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다. 연합뉴스

100대 품목 기술개발에 1.2조 투입 소재·부품·장비 '脫일본' 박차

부처 간 협력사업 확대 방침
우수 품목 2~3년 내 상용화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수급 안정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0대 핵심 품목 기술개발에 1조2000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 소재·부품·장비 예산이 2조1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된 만큼 신속한 집행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만든다는 목표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인천 서구의 포도레지스트 소재 생산업체인 경인양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열고 '2020년 소재·부품·장비 대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100대 품목 조기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개발과 생산을 연계하는 기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범정부 차원에서 100대 품목 기술개발에 1조2000억 원을 투입하고, 부처 간 협력사업도 확대한다. 기술개발과 생산 연계를 위해 공공연구소·나노랩 테스트베드 구축에 1500억 원을 투자하고 국가연구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대, 연구개발(R&D)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중소기업에 보충,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 자금 지원 등 1조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3월 3개 대학에 신설되는 상생형 계약학과 등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인력을 양성한다.

기업 지원을 위해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각각 1000억 원, 금융위원회는 4000억 원 등 소재·부품·장비 투자펀드를 조성해 운용한다.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도 지난해 4개에서 올해 2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6건의 협력사업을 승인했다. 협력사업 대상은 반도체 전(前) 공정과 이차전지용 소재, 불소계 실리콘 소재 등으로 현재 전량 또는 상당액을 해외에 의존하는 품목이다.

홍 부총리는 "수출규제조치 이후 총 2조 원 이상 규모의 자발적 민간투자와 글로벌 기업의 국내투자 확대가 구체화됐고, 3대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공급 안정성도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며 그간의 성과를 설명했다. 이어 "100대 핵심전략품목 중 기술 수준이 높고 생태계가 조성된 품목은 2~3년 내 조기 상용화에 집중하고 미흡한 품목은 수입급 다변화와 해외기술 도입 등을 통해 3~5년 내 중장기 공급 안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국민연금, 투자 손실 땀 기업·임원에 '손배소'

국민연금이 보유 주식에 손해를 끼친 기업과 임원을 상대로 주주대표 소송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수탁자 책임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12월 27일 공시한 '국민연금 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수탁자 책임 활동의 내용으로 기금이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해 주주 제안뿐 아니라 소송 제기 등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우선, 국민연금은 투자기업이 이사 등의 고의·과실 등 위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봤는데도 책임 추궁 등을 게을리하는 경우 승소 가능성, 소송의 효과 대비 비용, 주주 가치 증대 여부 등을 따져 이사 등의 책임을 추궁할 주주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민연금은 투자자(주주, 채권자

등)로서 투자기업이나 임직원 등(외부감사인 및 다른 투자자 포함)이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때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할 수 있게 했다.

앞서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회의에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 활동(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과 범위, 절차 등을 명시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횡령, 배임, 사익 편취 등으로 기업가치를 훼손한 기업대표 이사 등의 해임이나 정관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주주 제안을 할 수 있게 됐다.

참여연대 등 시민노동사회단체는 국민연금이 뇌물 및 불공정한 합병 비율로 각각 기금에 손해를 끼친 삼성중공업, 삼성물산 등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소송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평균 소득' 남성이 여성보다 122만원 많았다

2018년 임금분석... 전기·가스 공급업 '619만원' 최다

2018년 중위소득 임금근로자의 중산층(중위소득 50~150% 미만) 비중이 전년보다 1.2%포인트(P)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중위소득도 4.6% 올랐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8년 임금근로자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은 297만 원, 중위소득은 220만 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3.4%(10만 원), 4.6%(10만 원) 증가했다. 이 통계에서 임금근로자 수는 행정 통계로 파악된 일자리의 수다.

소득구간별로 중위소득 50% 미만 저소득 일자리 비중은 20.4%로 0.4%P 축소됐다. 중위소득 150% 이상 고소득 일자리 비중도 30.6%로 0.8%P 하락했다. 반면 중산층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50% 이상 150% 미만 비중은 49.0%로 1.2%P 올랐다.

조직 형태별 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은 회사법인 326만 원, 회사 외 법인 328만 원,

	2017년	2018년
평균소득(만 원)	287	297
중위소득(만 원)	210	220
중위소득의 50% 미만	20.8%	20.4%
중위소득의 50% 이상~150% 미만	47.8%	49.0%
중위소득의 150% 이상	31.4%	30.6%

※ 출처: 통계청

정부·비법인단체 330만 원, 개인기업체는 167만 원이었다. 기업 규모별로 영리기업 중 대기업은 501만 원으로 중소기업(231만 원)의 2배를 넘었다. 비영리법인은 327만 원이었다. 중소기업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33.4%가 소득 150만 원 미만이었다.

산업별로는 농업·임업·어업(198만 원)과 협회·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198만 원),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189만 원), 숙박·음식점

(132만 원)의 평균소득이 200만 원을 밑돌았다.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중위소득은 110만 원에 머물렀다. 반면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619만 원), 금융·보험업(617만 원)은 평균소득이 600만 원을 넘었다.

한편, 성별 평균소득은 남자가 347만 원, 여자는 225만 원이었다. 중위소득은 각각 269만 원, 18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과 비교해선 여자의 평균소득이 12만 원(5.5%) 늘어 남자(9만 원, 2.7%)를 크게 상회했다. 여자는 150만~250만 원 미만 구간(37.5%) 쏠림이 심했는데, 이는 임신·출산 여성의 상당수가 숙박·음식점업 등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에 종사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령대별 평균소득은 40대가 365만 원, 50대는 341만 원, 30대는 322만 원, 20대는 206만 원, 60세 이상은 202만 원, 19세 이하는 78만 원 순이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이하인 노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인 소득 하위 70% 노인의 소득인정액이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8만 원, 부부가구 236만8000원이다. 이 중 최대 지급액 대상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38만 원, 부부가구 60만8000원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인상된 기초연금 오늘 지급

보건복지부는 9일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2020년 첫 기초연금을 23일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달 기초연금에는 법 개정에 따른 인상분이 반영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매월 25일 지급이 원칙이지만 이달에는 24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돼 23일 조기 지급된다. 이달부터 최대 지급액(30만 원) 지급대상인 소득 하위 20% 노인(65세 이상)에서 소득 하위 40% 노인으로 확대된다. 소득 하위 40%를 초과하는 244만 명의 기초연금은 물가 상승률이 반영돼 월 최대 25만 4760원으로 오른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보수 재건” 황교안(오른쪽)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가진 전직 당 대표 및 비상대책위원장 오찬 모임에서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황교안 “현역 50% 교체 2040 세대는 30% 공천”

“제왕적 대통령제 막는 개헌 추진”...대통령과 1대1 회담 제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4·15 총선 승리를 위해 현역 국회의원 50%를 물갈이하고 2040 정치인 30%를 공천하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하며 ‘인적쇄신’과 ‘혁신공천’을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천 혁신을 완성하려면 저를 비롯해 지도적 위치에 있는 분들의 희생정신이 절대적”이라며 기존에 마련한 국회의원 3분의 1 컷오프를 통한 공천 의지를 내비쳤다.

황 대표는 대표급 중진 가운데 험지 출마를 거부한 이들에 대해 “당의 어려움을 풀어나갈 책임 있는 중진들의 역할이 기대 되기 때문에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 판단하면 호응이 있을 수 있다”며 “공천관리 위원장이 공천의 모든 권한을 책임지고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총선 압승 시 제왕적 대통령제를 막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년간 문재인 정권, 특히 대통령의 폭정을 봤다”며 “지금 당장 필요하고 절실한 건 제왕적 대통령제를 어떻게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대통령제로 바꿀지에 대한 논의”라고 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일대일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황 대표는 “제가 제1야당 대표로 취임한 후에 대통령과 단독으로 만나 현안을 상의한 기억이 없다. 여러 번 요구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다”며 “이제 더이상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고 국민 목소리를 무시하는 불통의 정권이란 비난을 받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설 연휴 전 보수 통합에 대한 절박감을 드러냈다. 그는 “통합을 반대하는 행위는 문재인 정권을 도와주는 행위다. 무너지는 나라 앞에서 보수 더 이상 분열해서는 안 된다. 통합은 의무”라고 호소했다.

이를 위해 황 대표가 보수통합을 위해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에 설 전 회동을 요청했지만, 유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 대표는 이날 통합신당에 합류할 뜻을 밝힌 원희룡 제주지사를 만나 보수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한국당의 위성·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가칭)이 설 연휴 이후 공식 출범할 전망이다. 김하늬 기자 honey@

與 ‘의원 20% 살생부’ 시끌

명단 미리 나돌면서 뒤송송 ‘친문-텃밭’ ‘비문-험지’ 가나 이해찬 ‘임종석 당에 모실것’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설 연휴 직후인 28일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자들에게 개별 통보하기로 한 가운데, 미리 명단이 나돌면서 당내 분위기가 뒤송송하다. ‘하위 20%’ 의원은 이번 총선 경선에서 20%의 감산 페널티를 받게 돼 사실상 당내 경선에서 이기기는 어렵다.

공관위원을 맡은 이근형 당 전략기획 위원장은 21일 공관위 전체 회의 후 하위 20% 해당자에 대해서 28일 원혜영 공관위원장이 유선상으로 개별 통보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당규에 따르면 통보를 받은 해당자들은 48시간 이내의의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22일 민주당 내부에서는 하위 20%에 속하는

12명 의원의 명단이 나돌자 술렁이는 분위기다. 여기에 중진 K, K, S, S, S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서울·인천·경기·충청·부산 등 지역구가 고루 분포돼 있고 초선부터 다선 중진까지 다양했지만, 친문 실세로 꼽히는 의원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같은 잡음에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명단은 개봉하지 않아 밀봉된 상태”라며 선을 그었다고 전해진다.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은 최고위원회의 이후 “하위 20% 명단은 100% 가짜”라며 “본인들에게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조심해야 한다”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민주당은 “명단에 포함된 의원은 20%의 감점을 받을 뿐 얼마든지 경선에는 참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당 내부에선 경선 결과 ‘패자부활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분석한다. 20%의 감점을 받은 현역 의원이 최대

25%의 가산점을 받는 청년, 여성, 신인 도전자와 경선에서 맞붙을 경우 시작부터 최대 45%포인트의 격차가 생기는 등 패널티 폭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민주당은 ‘아빠찬스’ 지역구 세습 논란에 휩싸인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근 씨에게 국민 정서와 괴리된다는 당 차원의 우려를 표했다. 또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2일 정계 복귀 가능성이 제기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관련해 “제가 (당으로) 모시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총선 불출마 입장을 밝힌 임종석 전 실장이 이날 민주당 정강 정책 방송연설 첫 연설자로 나서면서 사실상 정치 복귀 신호탄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또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가 발족하면 위원장으로 모실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민주·한국당 ‘安 정치행보’ 거슬리네

정부·여당 ‘약한 고리’ 조국·부동산 잇따라 공략 독자노선 고수 ‘일여다야’ 구축 땀 보수 야권 불리

16개월 만에 정치활동을 재개한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의 독자 행보가 다가오는 총선에서 여야 중 어느 쪽에 이득일지 정치권의 썬밭이 분주하다.

귀국 사흘째를 맞은 22일 현재까지 안 전 의원의 행보는 정권과 여당의 ‘약한 고리’를 공략하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정계복귀 첫 일정으로 2016년 총선 ‘국민의당 돌풍’의 진원지였던 호남을 찾았다. 안 전 의원이 호남을 찾은 것은 ‘어게인 2016’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후 일정에는 정권을 향한 비판 메시지가 담겼다. 안 전 의원은 21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출신의 김경률 회계사와 만났다. 김 회계사는 ‘조국 사태’가 한창일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를 옹호하는 진보진영 인사들을 강하게 비판한 뒤 참여연대를 떠난 인물이다. 이튿날인 22일에는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방문해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를 논의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참모진의 부동산 재산이 최근 3년간 3억 원 증가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등 최근 들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 왔다.

여기까지만 보면 안 전 의원의 정계복귀는 정부·여당에 부정적인 이유로 해석된다. 하지만 안 전 의원이 독자노선을 걷는 것은 한국당 등 보수 진영 입장에서 결코 그리운 부분이다. 여당에 유리한 ‘일여다야(一與多野)’의 구도가 굳어질 수 있어서다. 이에 통합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보수 진영에서는 안 전 의원을 향해 연일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안 전 의원은 “그것이 아팔로 정부·여당이 바라는 함정에 들어가는 길”이라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결국 진보·보수 진영의 유불리는 ‘안 전 의원의 보수 통합 참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유충현 기자 lamuziq@

참다한 홍삼
CHAMDAHAN RED GINSENG

설맞이

특별할인전

2020.1.2~2.3

5% 할인

15만원 이상 구매시

10% 할인

30만원 이상 구매시

15% 할인

60만원 이상 구매시

20% 할인

200만원 이상 구매시

5+1 추가증정 & 10% 추가할인

홍삼정 마일드스틱	클래식	홍삼절편 (120g)	다시, 남자	다시, 여자	홍삼대환
55,000원 49,500원	55,000원 49,500원	55,000원 49,500원	69,000원 62,100원	89,000원 80,100원	150,000원 135,000원

• 온,오프라인 동시진행 • 5+1제품은 금액별 할인과 중복 적용 불가 • 복수구매 할인과 중복 적용 불가

고객상담전화 1661-0308 더 많은 혜택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chamdahan.com

미국도 뚫렸다... '신종 코로나'에 글로벌 금융시장 긴장

中 방문 美 거주자 첫 발병 소식에 뉴욕증시 6거래일 만에 하락반전 투자심리 약화... 향후 추이에 촉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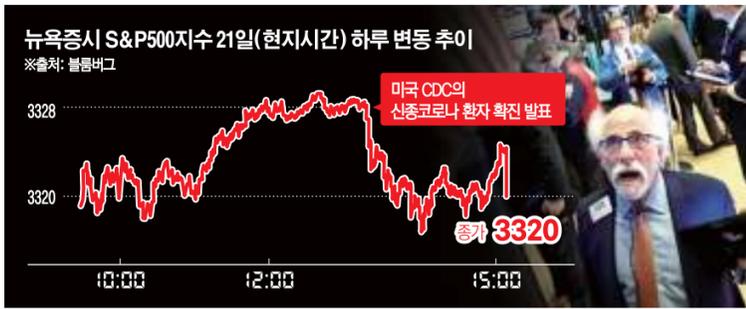
중국 우한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신종 코로나)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긴장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리빈 부주임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440명에 이르고 사망자는 9명에 달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하루 사이에 신종 코로나 환자가 100명 이상 늘어난 것이다.

아울러 환자가 중국과 아시아는 물론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도 확인되면서 제2의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는 공포가 시장으로도 번졌다.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질병예방통제센터(CDC)의 미국 내 첫 확진자 발표에 일제히 하락했다. 다우지수는 0.52% 내린 2만9196.04로 마감해 6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장중 사상 최고치 경신에도 결국 0.19% 하락으로 장을 마쳤고 S&P500지수는 0.27% 하락했다.

이번 주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3.4%에



서 3.3%로 하향 조정하고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시위사태가 계속되는 홍콩 신용등급을 'Aa2'에서 'Aa3'로 1단계 강등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다시 커진 가운데 '신종 코로나 패닉'이 투자심리를 더욱 악화시킨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상원 탄핵 심리가 전날 시작된 것도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유럽증시는 디지털에 관련, 프랑스와 미국이 연말까지 휴전하기로 했다는 호재에도 글로벌 경기 둔화와 신종 코로나 우려로 약세를 보였다. 범유럽 증시 벤치마크인 스톡스유럽600지수는 전날 0.14% 하락으로 마감했다.

반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작용하면서 미국 국제 10년물 금리는 전날 5bp(bp=0.01%포인트) 하락한 1.77%를 기록했다.

신종 바이러스 공포에 중국 위안화 가치는 전날 미국 달러화에 대해 0.55%로 5개

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나타내고 나서 이날 보합권에서 움직였다.

중국 보건당국은 전날 신종 코로나를 사스, 중증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과 같은 '윙류' 전염병으로 지정하면서도 대응 수준은 흑사병, 콜레라와 같은 '갑류' 전염병으로 격상했다. 이는 17년 전 사스 사태 당시와 같은 것이다. 춘제(설날) 연휴를 앞두고 이미 민족대이동이 시작된 가운데 전쟁에 돌입한 것이다.

미국 CDC도 중국 우한시에 대한 여행 경보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애틀랜타와 시카고 공항을 검역 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바짝 긴장하고 있다. 여행경보 2단계는 여행객들이 아픈 사람이나 동물과의 접촉을 피하도록 권고하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나타나면 시장은 더욱 요동칠 전망이다. 중국 민생증권의 관청유 이코노미스트는 "블랙 스완은 항상 초대받지 않은 방식으로 도착한다"고 지적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세계로 퍼진 기침소리 얕아누운 항공·관광株

中 춘제로 전염병 확산 공포
美 델타·英 IAG 일제히 급락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신종 코로나) 확산 공포가 전 세계를 덮치면서 글로벌 항공 및 여행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증시에서는 항공주가 일제히 급락했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 공포로 세계 관광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져서다. 세계 최대 항공그룹인 IAG는 영국 런던 증시에서 3% 가까이 떨어졌고, 프랑스 에어프랑스(-2.6%)와 미국 델타항공(-2.72%), 유나이티드항공(-4.4%), 아메리칸항공(-4.2%) 등도 일제히 하락했다.

시장은 중국 최대 항공연휴인 춘제에 코로나바이러스가 아시아는 물론 태평양 건너로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이 기간 이동하는 중국인 수는 수억 명에 달하며, 여행 건수만 해도 30억 건에 이른다.

중국에서 발병한 바이러스는 벌써 인접 국가인 태국, 일본, 한국 등에서도 발생했다. 심지어 태평양 건너 미국에도 상륙해 첫 감염자가 보고됐다. CNN에 따르면 현재 신종 코로나로 중국에서만 9명이 사망하고 400명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매우 유사한 바이러스로 평가받는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가 발생한 2002년 774명이 사망한 점을

원리조트 주가 추이
(단위: 달러)



고려하면 환자 수 급증이 예상된다. 과거 사스 발생 당시만 해도 세계 관광시장은 크게 위축됐다. 2002년 12% 성장률을 보였던 중국 국내 관광은 사스 발생으로 2003년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에릭 린 UBS증권 애널리스트는 "관광업계 밸류에이션이 2003년 2-6월 최고치에서 20-50%까지 떨어졌다"고 강조했다.

과거 사스 때와 비슷하게 세계적으로 창궐할 경우, 중국-아시아-기타 대륙으로 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중국, 홍콩에서 미국에 들어오는 승객은 항공사 승객의 약 1%에 불과하지만, 작년 우한에서 항공기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 수만 해도 6만 명이 넘는다.

타격은 항공업계만이 아니라 관광산업 전반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이날 증시에서는 카지노 관련주도 폭락했다. 카지노 사업을 하는 미국 원리조트와 라스베이거스샌즈 주가는 각각 6.1%, 5.4% 급락했고, MGM 주가는 홍콩 증시에서 6.2% 주저앉았다.

김서영 기자 jyoung2@



'보균자 올라'... 불안한 환영인사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를 맞아 중국인들이 대거 해외 여행에 나서는 가운데, 21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보건당국 관계자들이 입국자들의 검역을 위해 쿠알라룸푸르국제공항에 파견 나와 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날로 확산하며 중국에서만 감염자가 440여 명에 이르고 9명이 숨졌다. 다만, 한국, 일본, 태국 등 주변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첫 감염 사례가 나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2일 긴급회의에서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여부를 결정한다. 쿠알라룸푸르/AFP연합뉴스

넷플릭스 "디즈니, 보고 있나?" 해외 유료회원 첫 1억명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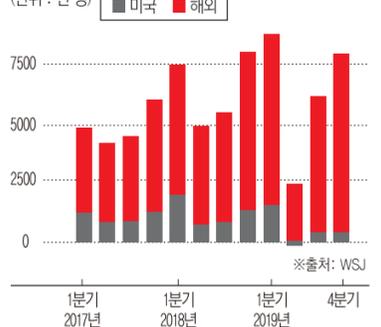
세계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 넷플릭스의 미국 밖 유료 회원 수가 처음으로 1억 명을 돌파했다. 미국 내 회원 수 역시 월트디즈니와 애플 등 거대 경쟁 기업들의 등장에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면서 견고함을 과시했다고 니혼게이지신문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넷플릭스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한 54억6743만 달러(약 6조4000억 원)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순이익은 전년의 무려 4.4배인 5억8697만 달러였다. 이는 4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작년 12월 말 기준, 전 세계 유료 회원 수는 1억6709만 명으로 9월 말보다 876만 명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유럽·중동·아프리카(EMEA)에서 442만 명,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175만 명 각각 늘어 미국 이외 지역의 유료 회원 수는 1억604만 명을 기록했다.

아울러 넷플릭스는 주식시장이 경계하던 미국 내 유료 회원 수도 42만 명가량 증가하면서 견고함을 과시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11월 월 구독료 6.99달러의 '디즈니 플러스(+)'와 월 4.99달러의 '애플TV+'가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이용자가 분산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드라마 '위체', 로버트 드 니로 주연의 파피야 영화 '아이리시맨'의 개봉 등에 힘입어 고객들

넷플릭스 회원 증가 추이
(단위: 만 명) ■ 미국 ■ 해외



을 붙잡을 수 있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이에 넷플릭스는 올해 첫 분기 실적 전망도 낙관적으로 잡았다. 올해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7% 늘어난 57억 3100만 달러, 순이익은 2.2배인 7억 5000만 달러를 전망했다. 세계 유료 회원 수는 작년 12월 말보다 700만 명 증가해 1억 7409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나스닥 정규 거래에서 0.5% 하락 마감한 넷플릭스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2.2% 급등했다.

다만 앞으로는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스트리밍 서비스 업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올봄에 컴캐스트의 NBC유니버설과 AT&T의 워너미디어가 스트리밍 서비스 '피콕'과 'HBO맥스'를 각각 선보인다. 변호선 기자 hsyun@

中 끝나자 EU... 트럼프 "무역합의 안되면 車 관세"

G2 1단계 합의 끝나자 유럽 정조준

15일 중국과 1단계 무역 합의를 끝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을 정조준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EU와 무역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면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WSJ와의 인터뷰에서 "그들(EU)은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지 못하면 내가 관세를 발동할 것임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협상 시한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지만, "그들은 마감 기한을 알고

있다"고 밝혀 조만간 구체적 일정을 발표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쳤다.

인터뷰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신임 EU 집행위원장과 정상 회담을 하기 직전에 이뤄졌다. 트럼프는 회담 시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관세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미국과 유럽은 좋은 동료이며, 이 관계를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갈등은 피해야 한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자동차 관세 부과를 추진했으나 마감 기한인 지난해 11월 13일까지 관세 발동 결정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은 교역상대국의 불공정한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자동차 관세를 추진할 수 있다.

미국은 중국 다음으로 무역적자 규모가 큰 EU에 대해, 자동차 관세를 지렛대로 무역협상에서 크게 양보를 얻어낼 속셈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의 1단계 합의에서도 미국은 추가 관세 인상을 보류하는 대신, 중국으로부터 미국산 농산물에 대량으로 구입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다만, 트럼프가 유럽에 대립각을 세우기만 한 것은 아니다. 그는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디지털세와 관련, 연말까지 휴전하기로 했다는 것을 이날 확인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한번에 오픈 편하게 बैं킹

오픈뱅킹의 시작, NH농협은행에서

2000만이 선택한 NH농협은행 모바일 플랫폼-
NH농협은행 오픈뱅킹만 있으면 18개 주요은행
어떤 계좌든 조회, 이체 다 가능하니까!



즉시 이체

다른 은행 계좌에서
원하는 계좌로 즉시 이체



지금 충전

다른 은행 계좌에서
NH농협은행 계좌로 충전 가능



모바일 ATM

ATM 출금잔액 부족 시
타 은행에서 충전 후 출금 가능



더+모임 서비스

모임 회비납부 시
타 은행 계좌에서 출금 가능
(11월 23일 이후 적용 / 올원뱅크에서 가능)



더치페이 서비스

더치페이 서비스 이용 시
타 은행 계좌로 출금 가능
(11월 23일 이후 적용 / 올원뱅크에서 가능)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상품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661-3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201900002688 (2019.11.07. ~ 2021.11.30.) ※ NH농협은행 디지털채널부 개발상품

 NH농협은행



맛있는 우리 농·축산물로 즐거운 설 명절 보내세요!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 -  NH  농협

〈신한금융 회장〉

‘사법 리스크’ 벗은 조용병... ‘일류 신한’ 강드라이브

채용비리 1심 집행유예 선고
“지배구조 리스크 일부분 해결”



바탕으로 초일류 계획에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지배구조 리스크가 일정 부분 해결됐다”고 평가했다.

M&A·고객 중심 제도 개편 등
리딩뱅크 넘어 글로벌 무대 도약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사신) 신한금융 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법정 구속을 면했다. 법적 리스크로부터 한숨 돌린 신한금융은 조 회장을 중심으로 한 ‘원 신한(One shinhan)’을

경영 공백 우려를 떨친 만큼 ‘일류 신한’

로드맵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신뢰, 개방성, 혁신 등을 통해 일류 신한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고객 중심으로 평가제도를 개편하고, 적극적인 인수·합병(M&A)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리딩뱅크’를 넘어 글로벌 무대로 도약하겠다는 뜻이다. 신한금융은 2018년 KB금융으로부터 1위 자리를 빼앗은 이후 2년째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신한금융의 순이익은 3조7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KB금융(3조3300억 원)보다 많다. 오

렌지라이프를 품에 안은 이후 연간 이익이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순이익도 3조 6700억 원으로 KB금융(3조3200억 원)을 앞설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들은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보험·카드·부동산신탁 등 다변화된 비은행 포트폴리오가 신한금융의 이익 변동성을 잡아줄 것으로 보고 있다. 신남방 7개국에서 활발히 영업 중인 해외 지점들의 양호한 성적표도 실적을 끌어올리고 있다. 하지만 안심하긴 이르다. KB금융은 최근 프르덴셜생명보험 인수전에 뛰어들었

다. 자금조달, 인수 대금 등 다양한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합병에 성공한다면 40~50bp((bp=0.001%포인트)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의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조보람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저성장·저금리로 영업환경이 위축돼 있기는 하지만, KB금융이 프르덴셜을 인수하면 ROE는 0.4~0.5%, 주당순이익(EPS)은 4~5%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추가 증익 효과와 시너지 창출은 합병 이후 경영진의 전략에 달려 있다”고 판단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수수료 편취·갑질 영업’ GA 꼼짝마

금감원, 보험사 연계검사 강화
내부통제 등 제도 개선 추진

앞으로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영업 전반에 걸친 검사, 보험사와의 연계검사가 강화된다. 또 GA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2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법인보험대리점 영업 전반에 대한 검사 결과 주요 확인내용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5~11월 기간 중 리더스금융판매, 글로벌금융판매, 태왕파트너스 3개 GA에 대해 영업 전반을 살펴보는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금감원은 크게 △업무 전반의 취약한 내부통제체계 △조직적인 대규모 모집질서 위반행위 △불공정행위, 개인신용정보 관리 미흡 등의 내용을 확인했다.

대형 GA 대부분은 수수료를 증대하기 위해 지사형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GA의 내부통제 기능은 매우 취약했다. 개별 지사는 독립적인 경영체로 운영되며, 조직·인사, 회계 및 자금 관리 등 모든 업무를 본사의 통제 없이 직접 수행하는 실정이다. 예컨대, 준법감사가 있어도 유명무실하거나 본사의 지점 통제권이 부재한 경우가 다.

허위계약, 특별이익 제공, 수수료 부담 지급, 불완전판매 등 조직적인 대규모 모집질서 위반행위도 다수 적발됐다. GA 임원은 수십억 원 규모의 허위계약을 작성해 매출을 과대계상하고 편취한 모집수수료는 임의 사용했다. GA 업계에서는 차익거래를 통한 모집수수료 편취 관행이 성행했

다. 차익거래는 해약환급금과 모집수수료 등을 합한 값이 납입보험료보다 많을 때를 얘기한다.

이 밖에도 보험사에 해외 여행경비를 요구하는 갑질 행위도 적발됐다. 일부 GA는 매년 우수 설계사 600~800명에게 해외 여행을 시상하면서, 보험사에 수십억 원 규모의 여행경비를 요구했다.

이는 약정된 수수료 이외의 부당한 요구일 수 있음에도, 보험사는 GA의 시장 영향력 등을 감안하여 여행경비를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신용정보 관리 미흡, 가상계좌 악용 사례도 포착됐다.

금감원은 이번 보험대리점 영업 전반에 대한 검사를 통해 GA업계의 경영태도 변화를 유도하고 제도개선 방향성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기존 지점 및 설계사 위주의 검사에서 벗어나 본사·다수 지점에 대한 검사 실시 및 경영진의 책임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GA업계가 자율적으로 지사형 조직을 정비하고 위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업계 경영관리 행태가 개선되기 시작했다.

또한, 부문검사로서는 확인이 어려웠던 GA의 구조적 문제점 등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 및 방향성을 확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 전반에 대한 검사를 지속 실시, 위규에 대해 엄정 제재할 것”이라며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GA 임원 등에 의한 조직적인 위반행위 및 모집법규의 반복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지연 기자 sjy@

토스 ‘휴대폰 파손보험’ 일주일새 4400명 가입

토스가 에이스손해보험과 손잡고 만든 ‘휴대폰 파손보험’이 출시 일주일 만에 가입자 4400명을 넘어섰다.

이 보험은 2017년 이후 출시된 삼성·LG·애플 휴대폰을 사용 중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휴대폰 수리나 교체 시 1회 30만 원, 연

2회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단말기 제조업체의 공식 수리센터를 이용해야 한다. 피싱, 해킹 등 금융사기 피해도 최대 100만 원 한도로 보상한다.

다음달 12일까지 한시적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월 3900원이다.

토스 관계자는 “가입 시 사용자의 휴대폰 상태를 별도로 점검하는 절차를 없앤 것이 주효했다”며 “기존 보험 가입 시기를 놓친 고객이나 중고폰을 산 고객이 주 가입자”라고 설명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금융계열사〉 사장단 젊어진 ‘삼성’... 임원진도 40대 약진

화재 김인·카드 최정훈 전무
성과·능력주의 기반 승진 단행

삼성금융계열사가 22일 임원 인사에서 40대 임원을 대거 배출했다. 전날 사장단 인사에 이어 ‘세대교체’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삼성생명은 22일 2020년 정기 임원 인사를 통해 부사장 등 총 11명을 승진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선 연세대, 자산운용 출신이 강세를 보였다.

박종문(55) 신임 부사장은 1965년생으로 연세대를 졸업하고 1990년 삼성생명에서 입사해 경영지원실 상무, CPC전략실장 전무, 금융경쟁력제고 태스크포스(T/F)팀장 전무 등을 지냈다.

이날 전무에는 김원회·이경복·이성열 전 상무 3명이 승진했다. 김원회(53) 신임 전무는 1967년생으로 충북대를 졸업하고 1991년 삼성생명에서 입사해 호남사업부장 상무, 개인지원팀장 상무, FC1사업부장 상무 등을 지냈다.

이경복(55) 신임 전무는 1965년생으로 연세대를 졸업하고 1990년 삼성생명에서 입사해 경리팀장 상무, 재경팀장 상무 등을 역임했다. 이성열(56) 신임 전무는 1964년생으로 서울대를 졸업하고 1986년 삼성생명에서 입사해 경



박종문 삼성생명 부사장 박경국 삼성카드 부사장



김인 삼성화재 전무 최정훈 삼성카드 전무

영지원실 상무, ERP추진팀장 상무, 디지털혁신실장 상무 등을 거쳤다.

삼성화재도 이날 전무 4명, 상무 7명 등 총 11명의 정기임원 승진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김규형(55) 인사팀장, 김인(48) 기획2팀장, 정현(54) 경기사업부장과 이호현(53) 전 삼성엔지니어링 재경팀장이 상무에서 전무로 승진했다.

특히 김인 전무는 1971년생으로 전무 승진자 중 유일한 40대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조지워싱턴대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금

용위 과장 출신으로 2014년 삼성화재 입사 이후 기획1팀장, 대인보상3팀장, 지방보상2팀장 등을 역임했다.

김규형 전무는 1964년생으로 서강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87년 삼성화재에 입사해 전략영업1사업부장, 홍보팀장을 거쳐 인사팀장 겸 사회공헌단장으로 재직해왔다.

정현 전무는 1965년생으로 경희대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 삼성화재 입사 이후 CPC전략파트장, 영업교육팀장 등으로 근무했다.

삼성카드는 40대 임원을 대거 발탁했다. 박경국 신임 부사장(56)은 1964년생으로 경상고, 서울대를 졸업하고 2000년 삼성카드에 입사해 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담당, 경영지원실장, 개인영업본부장 등을 거쳤다.

김상우 신임 전무(55)는 영진고와 연세대를 졸업하고 2002년 삼성카드에 입사, 기획조사2팀장, 기획조사담당, 기획홍보담당, 기업비즈(BIZ) 1담당 등을 역임했다.

최정훈 신임 전무(48)는 문태고를 나와 광운대 경영학 석사, 한양대 행정학 석사, 조지 워싱턴대 경영학 석사를 받았다. AT커니(A.T Kearney) 파트너, BC카드 임원, 삼성카드 디지털 마케팅담당 등을 지냈다. 서지연 기자 sjy@

금융위-은행聯, 주담대 연체 서민 채무조정 지원 강화

‘햇살론17’ 공급 8000억 확대
살던 집 매각 후 장기임대 방안도

정부가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이 거절된 주택담보대출 연체자를 대상으로 추가 조정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은행권은 ‘햇살론17’ 공급 규모를 8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의 공급 목표를 늘려나가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전국은행연합회는 22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본관에서 ‘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담대 연체 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채무조정 지원강화 방안은 3월 2일부터 전 은행권 공동으로 시행된다.

우선 은행권과 자산관리공사(캠코), 신복위는 ‘주담대 연체서민 채무조정 지원강화를 위한 공동 MOU’를 체결하고 서민 주담대 연체자가 주거상실 우려 없이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

연체채주 특화 'New Sale&Lease back' 프로그램			
채주 상황	연체 지속 경매 등 주거상실 위기	연체 해소 주거안정	경제적 재기 주택 재확보
내용	① 주택매각 : Sale	② 재입차 : Lease Back	③ 재매입 : Buyback Option
채주	채무청산 주택매각 ↓ ↑ 차액지급	임차거주 보증금과 월세 납부 ↓ ↑ 주거안정	주택 재확보 차액지급 ↓ ↑ 주택매각
캠코	채권·주택상계 대출금 ↓ ↑ 채권매각	매입주택 임대	주택 매각
금융사	채권회수		

가기로 했다. 서민 주담대 연체채주는 부부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이면 서시세 6억 원 이하의 1주택자로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채주가 대상이다.

우선 신복위 채무조정이 거절된 이들을 대상으로 캠코와 연계해 추가로 조정 기회를 부여한다. 현재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는 채권단(금융회사)의 과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 이에 채무조정 지원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또 캠코의 매입형 채무조정을 채무자 신청중심 제도로 개편한다. 이에 신복위에서 연계한 채주의 신청에

따라 캠코가 금융사와 채권매입을 협의하는 채무자 신청중심 제도로 전환할 방침이다.

아울러 채무조정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주를 위해 서민 연체채주 특화 프로그램인 ‘세일즈 앤 리스백’을 신설한다. ‘세일즈 앤 리스백’ 제도는 채주가 보유주택을 캠코에 매각해 채무를 청산한 후, 살던 주택에 장기임차 거주하면 임차중료시점에 주택의 우선 재매입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1분기 중 은행권 채무자를 대상으로 우선 출시 후 점차 전 금융권으로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박진산 기자 jinsan@

대한항공, 뉴욕 JFK국제공항 재개발 사업 참여

대한항공이 뉴욕 존 F. 케네디(JFK) 국제공항 개발 사업에 다시 한번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달 19일 열린 이사회에서 'JFK 터미널1(원) 재개발 사업 참여안'을 통과시켰다.

JFK국제공항은 맨해튼 도심에서 동쪽으로 24km 떨어진 곳에 자리해 있으며 국제선 노선 수 및 이용객 수가 미국에서 가장 많은 공항이다. 라파디아 공항, 뉴욕 리버티 국제공항과 함께 미국으로 들어가는 최대의 국제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

뉴욕 JFK공항 터미널 재개발 사업은 2017년 뉴욕주지사가 JFK공항을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포부로 준비한 사업으로 이듬해 세부 계획과

**일본항공·에어프랑스·루프트한자와 공동 투자
부지 33만㎡ 넓어지고 수용인원 2000만명 늘어
"신형 항공기와 잘 연동돼 승객 편의성 높아질 것"**

지 내놓은 프로젝트다.

현재 이 공항의 터미널1은 대한항공을 비롯해일본항공(JAL), 프랑스에어프랑스, 독일 루프트한자가 이용하고 있다.

4개 항공사는 과거 1994년 JFK공항 터미널1 공동 전용 터미널 사업에 입찰 및 건설 계약을 체결, 1998년부터 지금까지 사 용해왔다.

연간 350만 명의 승객이 이용할 수 있고 시간당 5000여 개의 수하물 처리가 가능

해 당시 성공적 개발 사업으로 불렸다.

그러나 이후 공항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 하고 터미널 시설이 노후하면서 재개발 필요성이 제기됐고 올해 본격 재개발 공사를 시작했다. 공사 완료 예상 시점은 2025년 중순이다.

대한항공은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로 이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1994년 JFK공항 개발 사업에 참여할 때 4개 항공사는 당시 사용하지 않던 이스

턴 항공사의 전용 터미널을 공항 소유주인 뉴욕항만관리회사로부터 장기 임차해 새롭게 터미널을 지었다. 약 4억3000만 달러를 채권 발행 형식으로 빚을 낸 후 4개사가 공동 상환하는 방식이었다.

뉴욕시가 4개 항공사와 제휴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말한 만큼 이번 프로젝트도 이전과 같은 방식인 장기 임차 형식으로 진행 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어느 정도 규모로 투자가 진행되는 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대한항공이 있는 공항 남쪽 터미널에 투자되는 금액이 70억~80억 달러에 달해 대한항공이 투자하는 비중도 꽤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시간이 오래 지나 재개발하는 차원"이라며 "새롭게 지어지는

시설은 신형 항공기와도 잘 연동돼 승객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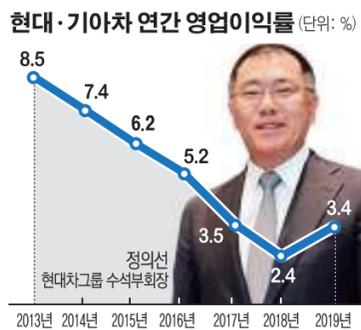
터미널을 포함한 공항 전체 재개발이 완료되면 부지가 현재보다 33만㎡(약 11만 평)가량 늘어날 것이다. 수용 인원도 지금보다 2000만 명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현재 따로 떨어져 있는 공항 내 터미널들을 하나로 연결해 밖으로 나갈 필요 없이 다른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게 돼 공항 이용객들의 편의성도 더 높아지게 된다. 대한항공은 앞서 JFK공항에 전용 화물터미널을 준공하기도 했다. 2000년 10월 준공된 화물터미널은 8만1000㎡(약 2만4500평) 부지에 연간 20만 톤의 화물을 소화할 수 있다. 김기승 기자 kissong@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V자 반등' 정의선... 남은 속제는 영업이익률

현대차 연매출 첫 100조 돌파
기아차도 작년보다 7.3% 증가
영업이익률은 3%대 머물러

아반떼·투싼 신모델 앞세워
올 영업이익률 5% 달성 목표



163조9364억 원으로 무려 15.8% 증가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오히려 35% 가까이 줄었다.

2015년 8조7122억 원이었던 현대·기아차의 통합 영업이익은 지난해 34.6% 감소한 5조6944억 원에 머물렀다.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이 1.1% 포인트 증가했지만 이 수치가 여전히 3.5%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전체 영업이익 상승'을 끌어내지 못했다.

결국 현대·기아차는 올해 수익성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 지난해 신차 출시 효과를 올해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준중형 세단 아반떼와 투싼이 새 모델을 준비 중이고, 기아차는 효자 모델인 쏘렌토와 카니발이 대기 중이다.

나아가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는 1월 들어 첫 번째 SUV인 GV80을 선보인 데 이어 하반기에 중형 SUV 'GV70' 출시를 앞두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제네시스 1대를 판매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영업이익은 쏘나타의 4배 수준이다. 마진이 좋은 효자 모델이 팔리고, 이에 따른 '판매 인센티브'까지 감소한다면 자연스럽게 영업이익은 개선세에 접어들게 된다.

현대차는 올해도 제네시스 GV80 출시를 시작으로 아반떼, 투싼 등의 주력 모델 신차를 내세워 5%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고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에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철근 현대차 IR팀장(상무)은 이날 콘퍼런스콜에서 "지난해 12월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올해 영업이익률 5%를 목표로 제시했다"면서 "권역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해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휘센 에어컨 미리 구매하고 캐시백 받으세요" LG전자가 3월 31일까지 LG베스트샵을 비롯해 전국의 모든 오프라인 매장에서 행사 대상인 휘센 에어컨 신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최대 70만원 캐시백, 제품 업그레이드 등 실속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사진제공 LG전자

中 우한 진출기업 '폐렴' 긴급대책

포스코·SK종합화학·현대위아·LG하우시스 등
주재원 발병 없지만 설 경weg 앞두고 예방책 만전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퍼지면서 현지에서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도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다행히 우한 소재 한국 기업에서는 아직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설 연휴를 앞두고 주재원들의 귀국 발걸음이 가뭄지 않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 중 포스코, SK종합화학, 현대위아, LG하우시스 등이 중국 우한에 판매법인, 가공센터 등의 형태로 진출해 있다.

포스코는한남개발지구에서자동차강판 전문 가공센터(POSCO-CWPC)를 운영 중이다. POSCO-CWPC는 우한 폐렴 발생과 동시에 '대응 지침'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전 직원 발생지역 접근 금지 △인원 많은 지역 회피 및 마스크 사용 권장 △전 직원 출근 시 체온 측정 및 발열 증상 여부 체크 △공장·사무실 등 곳곳에 손소독제를 설

치 △공장 전체 청소 및 방역(이번 주) 등이다.

2015년 1월 6만6000㎡(약 2만 평) 규모의 부지에 준공된 POSCO-CWPC의 연간 생산능력은 17만 톤으로 약 1400억 원의 매출을 내고 있다. 직원 수는 총 73명으로 이 중 한국인 주재원은 2명이다. 이들은 예년과 다름없이 설 연휴에 앞서 귀국할 예정이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이상 입국에 제한은 없다.

우한에서 상당히 큰 규모의 제조환경을 갖추고 있는 곳 중 하나가 SK종합화학이다. SK종합화학 역시 현지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감염 방지 키트를 지급하고 밀집 장소에서의 단체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또 공장 내부를 매일 소독하고 있으며 관련 의료설비를 추가 확보해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한라그룹 인사... 정몽원 회장 진두지휘

정 회장 최고인사책임자 맡아
만도브로제 CEO에 40대 이정석
김기영 상무보, 연구소 첫 여성임원

한라그룹이 20일 단행한 인사에서 '젊고 유연한 조직'으로의 변화를 선언했다.

정몽원 회장은 "사람이 핵심 자본"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그룹의 인사 철학인 기백(Spirit)과 합력(Team)을 바탕으로 '일류'로 가는 토양을 마련하고자, 그

를 'CHRO(Chief Human Resources Officer)'를 신설하고 직접 HR 혁신을 지휘한다.

정 회장은 그룹 인적자원의 미래를 양성하고 있는 한라인재개발원의 원장도 겸임하며 그룹 인사·교육 업무를 총괄한다.

또한, 한라그룹은 40대인 만도 이정석 상무보를 전무로 승진시키며 만도브로제 대표이사 CEO로 선임했고, 만도 R&D 센터의 김기영 책임연구원을 연구소 첫 여성 임원(상무보)으로 발탁했다.



이정석 전무

김기영 상무보

1971년생인 이 신임 대표이사는 1999년 만도 기획실에 입사해 △회장 비서실 재무 담당 △인도 및 미국법인 CFO 등을 거쳤다. 김 신임 상무보는 1979년생으로 2001년 만도에 입사해 연구개발 분야를 맡아왔다.

유창욱 기자 woogi@

한화큐셀, 유럽·호주서 '태양광 톱 브랜드' 선정

한화큐셀이 유럽에서 7년 연속, 호주에서 5년 연속 '태양광 톱 브랜드(Top Brand PV)'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태양광 톱 브랜드'는 태양광 전문 리서치 기관인 이우피디 리서치(EuPD Research)가 유럽과 호주 태양광 시장에

서 브랜드 인지도, 시장 침투력 등을 기준으로 고객조사를 실시해 수여하는 상이다. 2010년 독일을 시작으로 매년 태양광 모듈, 인버터, 에너지 저장장치 3개 제품군에 대해 '태양광 톱 브랜드'를 수여하고 있다.

한화큐셀은 2012년 한화그룹이 독일 큐

셀을 인수한 이래 2014년부터 유럽 태양광 톱 브랜드로 선정됐다. EuPD가 수상 범위를 호주까지 확대한 2016년부터는 호주에서도 매년 태양광 톱 브랜드를 수상하고 있다.

한화큐셀은 "유럽과 호주에서 높은 브랜드 파워를 이어가는 배경에는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제품 포트폴리오와 효과적 현지 영업 마케팅 전략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한국지엠 '트레일블레이저' 경품·시승 등 대대적 마케팅

한국지엠(GM)이 새로운 SUV 트레일블레이저의 대대적인 마케팅 활동에 나선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트레일블레이저 견적 상담을 신청한 고객 중 2020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트콘을 제공한

다. 또한, 견적 상담 이후 제한된 기간 안에 계약과 출고를 마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영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특별 프로그램 참여 기회와 함께 애플 와치5, 애플 에어팟 프로 등 경품을 받을 기회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설 연휴를 앞둔 23일부터 2월 2일까지 서울, 인천, 광주, 분당 등 유동인구가 많은 전국 주요 거점에 트레일블레이저를 전시한다. 유창욱 기자 woogi@

“돈 좇는 기업보다 사회에 도움 주려는 기업이 성공”

19회 ‘도전과나눔 기업가정신’ 포럼

주영섭 전 중소기업청장, CES 15번 참가한 소회 밝혀
“사회발전에 기여해 직원들 공감 얻고 고객 신뢰 쌓아야”
中企 경쟁력 강화 위해 비즈니스모델 혁신·글로벌 협력

“CES에서 큰 박수 소리가 나왔을 때는 혁신적인 기술보다 이 기업이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설명했을 때다. ‘어떻게 돈을 벌겠다’가 아닌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꾸겠다’고 말하는 기업이 성공하게 돼 있다.”

2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GS타워 아모리스홀에서 열린 제19회 도전과나눔 기업가정신 포럼에서 주영섭 전 중소기업청장(고려대 석좌교수)은 ‘2020라스베이거스에서 본 기술 동향과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이렇게 말했다.

주 교수는 “한국 기업들은 돈 버는 것을 목적으로 삼은 것이 눈에 보인다”며 “돈이 목적인 순간 감동이 생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공한 글로벌 기업은 우리 사회의 발전에 어떻게 이바지할지를 설명하고, 직원들이 그 목적에 동참하게 한다”며 “그런 감동이 팬덤을 만들고, 그 뒤 자연스레 돈은 따라오기 마련”이라고 밝혔다.

주 교수는 지난 30년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인 CES를 15번 참가했다. 최근 3년간



주영섭 고려대 석좌교수가 22일 서울 역삼동 GS타워 아모리스홀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사단법인 도전과나

은 빠짐 없이 다녀왔다. 그는 이날 ‘CES 2020’에서 느낀 소회를 털어냈다.

그는 자동차·모빌리티 분야에서 작년까지 대세였던 ‘자율주행’이 올해는 뒤로 물러난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대신 도시 문제 해결에 집중한 기업들이 도드라졌다는 평가다. 대표적으로 일본 자동차 회사인 도요타는 스마트시티인 ‘우븐시티(Woven City)’를 공개했다. 우븐시티는 자율주행, 인공지능(AI), 수소연료전지 등 신기술이 적용된 실험 공간이다.

주 교수는 “자동차 회사가 더 이상 자동차로 보여줄 게 없다는 딜레마를 봤다”며 “자율주행은 사고 시 책임 문제, 도시 설계 문제 등을 안고 있어 도로 인프라가 바뀌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동차 외에 가전, 게임 분야 등 CES에서 나타난 특징을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경향 아래 국내 중소기업이 대응할 방향인 △사물인터넷(IoT) 역량 확보를 통한 데이터 시대 대비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속 △글

로벌 협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혁신을 이뤄야 살아남는다는 강 의도 열렸다. 4차 산업혁명 권위자인 최재봉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가 ‘포노사피엔스 시대 트렌드 2020’을 주제로 강의했다.

최 교수는 무신사, 마켓컬리 등 혁신을 이뤄낸 스타트업들을 예로 들며 모든 삶의 공간이 디지털 플랫폼으로 옮겨 가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포노사피엔스(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쓰는 새로운 인류)’를 알아야 한다”며 “이제는 스스로를 포노사피엔스라고 생각하고 공부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단법인 도전과나눔은 지난해 8월 출범해 조찬 포럼을 이어오고 있다. 다음 달 19일에는 20번째 기업가정신 포럼을 연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과 최희재 마이클 대표가 연사로 나설 예정이다. 이자민 기자 aaaa3469@

과기부, 올해 인공지능 대학원 3곳 추가 선정

정부가 올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양성 계획을 당초 목표보다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제4회 미래인재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과학기술원 혁신방안’, ‘4차 산업혁명 대응 인재성장 지원계획 실적 및 계획’, ‘여성과학기술인 채용·승진목표제 추진실적 및 활용 실태조사’ 등 3건의 의제가 논의됐다. 또 제3차 과학기술문화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도 진행했다.

우선 과기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관련 분야 핵심인재 육성계획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올해 인재 육성 목표는 2만739명이었으나 2만1469명으로 730명 늘려 잡았다.

과기부 관계자는 “2022년까지 9만명 이상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최종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당초 계획을 상회하는 목표를 설정한 것”이라며 “강화된 과제관리 및 주기적 실적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인공지능 대학원을 3개 추가 선정하고, 이노베이션 아

해외 우수연구자 유치도 추진
4차 산업혁명 인재양성 확대
올해 2만1469명으로 늘려

카데미의 첫 교육 프로그램인 ‘42 SEOUL’ 본과정을 운영하는 등 인공지능, 소프트웨어(SW)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 인재양성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박사의 산·학 연계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신규사업(KIURI), 해외 우수연구자를 유치하는 신규사업(BP+)도 추진한다. 혁신성장 분야의 인재 확보를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포함한 GIST, DGIST, UN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의 혁신방안도 논의됐다. 국내 과학기술원이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거버넌스, 교육 및 연구, 국제화, 시스템 측면의 혁신과제들을 담고 있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앞으로 4대 과학기술원에는 공동 이사제 추진, 공동 사무국 역할 확대

등 과학기술원 간 연계 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세계 대학 수준으로의 정년보장 심사와 정년보장을 받은 교원의 업적평가 강화, 교원인사위와 연구진실성위의 외부위원 비중 확대, 주요 직위 외부공모제 등 기관 운영의 수월성, 개방성,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더불어 △잠재력 있는 학생 선발 △기초·현장교육 강화 등 창의적 인재양성 환경을 마련한다. 기관별 특성화 분야 기반 중점연구소 체제 구축과 박사후연구원 지원 강화를 통해 과학기술원의 연구역량 전반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국책 연구기관 등의 여성과학기술인 채용 및 승진 목표는 달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엔 과학기술분야 114개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여성과학기술인력 신규 채용 비율 31.1%, 승진비율은 17.4%를 기록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며 목표(채용 30%, 승진 15%)를 달성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LG헬로비전 직원들이 LG U+망 알뜰폰 출시를 홍보하고 있다.

사진제공 LG헬로비전

LG헬로비전, LG U+망 알뜰폰 출시

‘데이터 걱정 없는 LTE형’ 등
요금제 49종 구성 선택폭 넓혀
이통 3사 통신망 모두 제공

원하는 이동통신 3사망 요금제를 입맛대로 고르는 ‘알뜰폰 혜택 삼국지’가 펼쳐진다. 헬로모바일이 KT·SKT망에 이어 LG U+망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대, 새 단장을 마치고 고객 맞이에 나선 것.

LG헬로비전 헬로모바일이 LG U+망 알뜰폰 서비스를 출시, 오프라인 매장과 다이렉트몰을 통해 상품 판매에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 통신망 서비스 확장과 더불어, 앞으로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참신한 상품과 서비스 시도를 늘려 나갈 계획이다.

송규영 LG헬로비전 대표는 “LG U+망 출시와 함께 이통 3사를 아우르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 만큼, 고객가치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5G시대 알뜰폰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첫선을 보인 LG U+망 요금제는 총 49종으로 구성됐다. 기존 인기 요금제부터 달라진 모바일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신설 요금제까지, 고객의 폭넓은 선택권을 보장한 라인업이 특징이다. 주요 서비스는 △데이터 걱정 없는 LTE형(대용량·속도제어) 8종 △스테디셀러형(The착한 데이터·CU) 15종 △LTE 중저가형(슬림·보편) 20종 등이다. 이외에도 청소년 요금제, 패드 전용 요금제 등 특화 라인업까지 만나 볼 수 있다.

먼저 2030 데이터 해비 유저들을 겨냥

한 ‘데이터 걱정 없는 요금제’가 첫선을 보였다. 넉넉한 데이터 용량에 속도제어(QoS) 기능을 적용, 기본 제공량 소진 후에도 추가 요금 걱정 없이 데이터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영상 콘텐츠나 모바일 게임 소비량이 많은 고객이라면 ‘데이터 걱정 없는 유심 15GB’가 적격이다. 월 150GB 수준의 대용량 데이터를 업계 최저가인 월 3만9850원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스테디셀러 요금제도 부담 없는 가격에 즐길 수 있다. 음성·문자 무제한에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는 ‘The 착한 데이터 요금제’를 월 1만 원대부터 시작하는 라인업으로 구성, 사실상 완전 무제한 상품인 ‘The 착한 데이터 유심 11GB’의 경우 월 3만3000원에 이용 가능하다. 또한, 편의점에서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는 ‘CU 요금제’는 기존 라인업에 데이터 15GB(속도제어 무제한) 구간을 추가 구성해 선택 폭을 넓혔다.

아울러 적당한 제공량과 통신비 다이어트를 희망하는 고객을 위한 ‘슬림·보편 요금제’도 신설됐다. ‘슬림 요금제’는 소량의 제공량을 월 1만 원 미만(유심요금제 기준)의 초저가 기본료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보편 요금제’의 경우, 월 1만~2만 원대(유심요금제 기준) 기본료에 데이터를 15GB까지 제공해 가성비를 극대화했다.

향후 5G 요금제도 선보일 예정이다. 타사 대비 기본료를 낮추거나 제공량을 늘린 5G 유심 요금제 중심 라인업을 형성, 최신 5G 단말을 선호하는 고객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재훈 기자 yes@

코웨이, 자가관리형 공기청정기 출시

필터 세척·교체 시점 알림기능

코웨이가 필터 관리 시점을 알려주고, 초간편 필터 세척과 교체가 가능한 ‘자가관리형 공기청정기 카트리지’를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코웨이에 따르면 최근 공기청정기를 렌탈로 이용해 전문적 관리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수요층이 증가함과 동시에 스스로 관리를 원하는 수요층도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코웨이는 공기청정기 시장 리더로서 공기청정기 시장 확대를 위해 필터 자가 관리에 최적화된 공기청정기를 선보인다.

코웨이 자가관리형 공기청정기는 사용자가 스스로 제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특화해 만든 제품이다. 일반적으로 자가 관리 시 필터 세척 및 교체 시점을 놓치

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가관리형 공기청정기는 프리필터의 세척이 필요한 시점과 초미세먼지 집진필터의 교체가 필요한 시점에 맞춰 알림을 준다.

자가관리형 공기청정기는 디자인 또한 자가관리에 최적화됐다. 공기청정기 필터 중 프리필터는 2~4주마다 세척이 필요하다. 잦은 세척이 필요한 프리필터 특성에 맞게 제품을 오픈하지 않고 필터를 위로 쏙 뽑아 꺼낼 수 있도록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 관리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또한 3단계 필터가 한 번에 분리되도록 카트리지 형식으로 필터를 담아 교체 시 먼지 날림이 적다.

이번 자가관리형 공기청정기는 가로 34cm, 세로 16.5cm, 높이 47cm로 기존 동일 평형대의 자사 제품 대비 40%



정도 사이즈를 축소해 공간 차이를 최소화했다.

자가관리형 공기청정기는 우리집 미세먼지 오염도를 4단계 색상(좋음·보통·나쁨·매우 나쁨)으로 보여준다. 오염 농도가 높을 때는 풍량을 알아서 조절하는 자동 모드, 청정할 때는 정음 모드로 자동 변경된다.

이자민 기자 aaaa3469@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KB증권, 원화만으로 가능한 해외주식을 열다

GLOBAL ONE MARKET

불편했던 해외주식을 국내주식처럼 쉽고 편하게!
원화 거래로 더 편해진 해외주식,
지금 글로벌 원마켓에서 만나세요

-  원화 거래로 편리하게!
-  당일 거래로 바로바로!
-  환전 수수료 평생 무료!

[글로벌 원마켓 서비스 신청 시]
*일부 통화 한정
*국민은행 실시간 매매기준율 환율적용
(외환시장 마감시 익일 환율적용)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9-00260호(2019년1월22일) *당사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충분한 설명 청취 후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글로벌원마켓] *미국 주식수수료 온라인기준 0.25%
(매도시 0.0013% 제비용 별도) 일률적용합니다. *매체별, 금액별 수수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중도해지시 환전수수료 발생가능 *글로벌원마켓 가능국가 : 미국, 홍콩, 중국A, 일본

“명절 스트레스 날리세요” 유통가는 벌써 ‘포스트 설’

명절 직후 전통적 소비 비수기 대응해 할인전·불거리 마련
이마트 ‘레고 클리어런스’·현대백 ‘퍼레이드·방학체험전’

명절 직후는 일반적으로 유통가 비수기로 꼽힌다. 선물 장만, 여행 등 명절을 앞두고 씹쓸이를 늘린 소비자들이 명절 직후 대개 지갑을 닫기 때문이다. 이에 유통업계는 명절 직후 소비자가 많이 찾는 제품을 할인 행사하거나 각종 불거리를 마련해 소비절벽 극복에 나선다.

유통업계는 명절 연휴 장시간 운전, 가사노동으로 지친 고객을 위해 건강가전·식품 등을 할인해 선보인다. 이마트는 29일까지 ‘코지마 안마의자 마스터(CMC-A100, 418만 원)’,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엘리자베스(238만 원)’를 행사카드 결제 시 최대 15%가량 저렴하게 판매한다. 클럭 미니마사지기(S 대왕패드 2입 팩)도 정상가에서 2만 원 할인한 5만9800원에 선보인다.

건강식품도 준비했다. 이마트는 ‘고려은 단 진심을 담은 아연/철분/엽산 3종(각 30정)’을 각각 기본가 1만8000원에서 50% 할인한 9000원에 판매한다.

전국 홈플러스 매장에서는 23일부터 다

음달 5일까지 ‘리빙 뷰티케어’ 프로모션을 열고 미용실 지류 선물권 판매, 네일 이달의아트 30% 할인, 아놀드홍PT 10회 진행 시 1회 추가 증정 등의 혜택을 선보인다.

명절 직후 나를 위한 힐링 선물을 찾는 소비자를 겨냥해 각종 패션상품 기획전도 눈에 띈다. 현대백화점 판교점은 26일부터 27일까지 지하 1층 대행사장에서 ‘모피 특별전’을 열고, 진도모피·성진모피 등 10여 개 브랜드의 이월 상품을 최대 60% 할인 판매한다.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 등 6개 점포에서는 23일부터 27일까지 ‘한섬패션위크’를 열고 타임 원피스(50만7000원), 타임옴 니트(21만9000원) 등 인기 상품을 최대 40% 할인 판매한다. 같은 기간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송도점에서는 닥스·미소페·고세 등 10여 개 구두 브랜드의 이월 상품을 최대 60% 할인한다.

명절 기간 음식 준비로 지친 고객을 위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먹거리도 할인 판매한다.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22일 모델들이 다양한 간편식과 완구를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는 23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전국 140개 점포 및 온라인몰에서 다양한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사진제공 홈플러스

롯데마트는 29일까지 다양한 맛을 한번에 즐길 수 있는 ‘요리하다 하프앤하프 피자(345g)’를 5580원에, ‘요리하다바삭하게 튀겨낸 등심·치즈 돈가스(각 390g)’를 각 6980원에 준비했다.

홈플러스는 27일부터 다음 달 12까지 ‘누려라! 간편식!’ 기획전을 열고 홈플러스 시그니처 볶음밥 6종을 각 7990원, 2개 이상 구매 시에는 10% 할인 판매한다.

아울러 시그니처 100% 한우곰탕(1kg) 4990원, 시그니처 깊고시원한 소갈비탕(1kg) 8990원, CJ 가쓰오뚜김우동 및 가쓰오우동은 각 6990원, 풀무원 노엠티 피자 4종은 각 5990원에 내놓는다.

어린이를 겨냥한 완구 할인행사도 풍성하다. 이마트는 다음 달 5일까지 레고 클리어런스를 통해 ‘베트케이크’, ‘스타워즈 제국군 AT홀러’ 등 총 46종의 상품을

40% 할인해 판매하고, 레고 7만 원 이상 구매 시 레고 짝짝이 쥐(전점 5300개 한정)를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홈플러스는 29일까지 보드게임 30여 종 최대 30%, 레고 100여 종(7만 원 이상 구매 시 ‘레고 짝짝이’ 증정)은 최대 40% 싸게 팔고, 다음 달 5일까지 벽스봇 15종, 토이트론 실바니아 7종, LOL 전 품목, 베이 블레이드 1-3기 80여 종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롯데마트는 29일까지 ‘레드 패밀리카&불이 들어오는 이층집 스페셜 세트’를 20% 할인된 10만3200원에 선보인다.

명절에 쌓인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릴 불거리와 즐길 거리도 준비했다.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은 27일 8층 문화홀에서 가족 뮤지컬 ‘흥부와 놀부’를 선보인다. 김해점에서는 26일 당일 오후 2시와 4시 ‘뽀로로와 친구들’의 퍼레이드를 진행한다.

현대백화점 판교점은 26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10층 토포스에서 방학체험전 ‘판교 보드카페’를 연다. 판교점 5층에 있는 ‘현대어린이책미술관’에서는 ‘글이 없는 그림책’, ‘친구’ 등 총 4가지 주제로 ‘언-프린티드 아이디어(Un-printed Ideas)’ 전시를 선보인다. 박미선 기자 only@



신세계백화점은 디스커버리 ‘조거 맥스’ 운동화를 단독으로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 조거 맥스 운동화는 340g의 경량 운동화로, 최고급 초극세사 가죽을 사용해 편안한 착화감을 준다. 가격은 12만9000원이다. 신세계는 새 학기·봄 신상품을 예년보다 한 달 미리 선보이며 2030세대는 물론 10대 학생들의 수요까지 선점할 계획이다. 사진제공 신세계백화점

이른 설 덕분에... 신학기 책가방 불티

조카·손주 선물 수요 몰리며 책가방 판매 전년비 44% 쑥

때 이른 신학기 책가방 대전이 시작됐다. 예년보다 이른 설로 인해 조카나 손자를 위한 가방 선물을 계획하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몰린 탓이다.

패션업계는 이른 설 수요를 감안해 일찌감치 지난해 말부터 신학기 책가방 신제품을 출시해 왔다. 실제로 온라인몰에서는 신학기 가방 판매량이 연초부터 크게 늘었다.

22일 옥션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12월 21일~1월 20일) 전년 동기 대비 브랜드 책가방 판매량이 44%나 증가했다. 보조 크로스가방, 주니어 백팩도 각각 52%, 29% 매출이 늘었다.

SSG닷컴에서는 1월 들어 20일까지 신학기 가방 매출이 140.4%나 늘었으며 11번가에서도 신학기 가방 거래액이 올 들어 전년 동기 대비 15%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책가방 수요는 2월에 수요가 몰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올해는 이례적으로 1월 매출이 늘고 있다. 온라인몰 업계에

최근 1개월간 책가방 판매 증가율 (단위: %, 전년 동기 대비)
※ 2019년 12월 21일~2020년 1월 20일 기준
※ 출처: 옥션



서는 이른 설이 책가방 성수기를 앞당긴 것으로 분석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책가방의 경우 부모가 구매하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8포켓(조부모, 이모, 삼촌 등)이 선물하는 수요 또한 만만치 않다”며 “설을 맞아 조카나 손자에게 선물하기 위해 1월 매출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른 책가방 성수기에 패션업계도 적극 대응하는 모양새다. 예년보다 빠르게 신제품을 내놓고 기능성을 부각하며 책가방 대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네파 키즈는 네키가드백을 선보였다. 이 제품은 말 그대로 ‘내+키+가드’ 즉

내키 성장을 지켜준다는 콘셉트를 담았다. 조경량으로 아이의 어깨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아이디어에서 선보인 신학기 책가방 디에프와 제르는 유행을 타지 않는 베이직한 스타일에 신발 주머니와 필통을 함께 구성해 실용적인 제품이다. 특히 가방 전체에 쿠션 폼을 적용해 내구성을 강화하고,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인체공학적으로 설계했다.

탑텐키즈는 가방전문 브랜드 아이짚과 협업해 2020 스텝백 컬렉션을 내놨다. 론칭을 기념해 신학기 책가방 세트 구매 시 스텝존 제한속도 고지를 알리는 책가방 커버를 선착순 증정한다.

블랙야크키즈는 애니메이션 ‘신비아파트’와 콜라보레이션한 라인을 업그레이드해 선보인다. 또 초통령 유튜브 크리에이터 ‘도티’와 함께한 홍보영상을 통해 제품을 알리고 있다.

뉴발란스 키즈는 글리터를 활용해 여자아이들의 취향을 저격할 트렌디한 컬러감의 여아 전용 라인을 선보였다. 케이스위스(K·SWISS)는 수납을 극대화한 ‘더블러 백백’을 출시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LF 캐주얼 브랜드 ‘던스트’ 파리 상륙

패션위크 기간 ‘로미오 쇼룸’ 입점

생활문화기업 LF의 스트리트 캐주얼 브랜드 ‘던스트(Dunst)’가 패션의 본고장 프랑스 파리에 진출했다고 22일 밝혔다.

던스트는 15일 개막한 2020 F/W 파리 남성복 패션위크 기간에 맞춰 파리의 마레 지구에 있는 프랑스 최대 규모의 쇼룸인 ‘로미오(Romeo) 쇼룸’에 입점 제한을 받았다. 던스트는 파리 패션위크 기간 파리를 찾은 전 세계의 백화점 및 편집숍 바이어와 고객을 대상으로 제품을 선보였다.

던스트가 입점한 ‘로미오 쇼룸’은 마레 지구에서 20여 년간 매장을 운영한 역사와 뛰어난 MD(상품구성) 능력을 지닌 유럽 최고 수준의 쇼룸이다.

‘던스트’는 지난해 2월 LF의 사내 벤처 지원 프로그램으로 탄생한 고감도 스트리트 캐주얼 브랜드다. ‘형체가 없는’이라는 브랜드명이 의미하듯 패션, 건축, 사진, 그래픽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젊은 아티스트들이 모여 기획, 생산, 영업, 마케팅 등에 걸친 모든 의사결정을 벤처 조직만의 자율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진행했다. 박미선 기자 only@



‘로미오 쇼룸’에 입점한 스트리트 캐주얼 ‘던스트’

빠른 의사 결정과 갖가지 혁신적인 시도 등 벤처 조직의 특성을 발휘해 론칭한 던스트는 발매 1년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무신사, 29CM, W컨셉 등 밀레니얼 세대가 주목하는 패션 편집숍 및 온라인몰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다.

유재혁 LF 던스트 팀장은 “밀레니얼 세대의 전폭적인 지지와 관심을 받는 시장인 만큼 던스트는 앞으로도 이들의 요구를 상품기획과 마케팅에 반영해 국내는 물론 글로벌 패션 시장에서 광범위하게 사랑받는 밀레니얼 캐주얼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의점 대표 겨울 간식, 호빵 밀어낸 ‘군고구마’

CU, 1월 들어 호빵 매출보다 5.7% 앞서며 ‘첫 추월’

1월 들어 편의점에서 대표적인 겨울 간식이었던 호빵을 누르고 군고구마가 가장 인기 있는 겨울철 먹거리로 등극했다.

BGF리테일은 자사가 운영하는 편의점 CU(씨유)가 최근 3개월 주요 겨울 상품의 매출을 분석한 결과, 군고구마 매출이 이달 중순 처음으로 호빵 매출을 넘어섰고 22일 밝혔다.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군고구마 매출은 호빵 매출의 65%에 그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최근 폭발적인 판매량을 보이며 1월 현재 호빵보다 5.7% 매출이 앞서고 있으며 점당 매출로는 무려 7.3배나 높은 매

출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 CU의 군고구마 운영점은 약 2000점으로, 호빵은 약 1만3000점에서 판매하고 있다. 판매 점포수가 1/6밖에 되지 않을 뿐더러 10여 가지에 이르는 다양한 상품을 가진 호빵을 단품인 군고구마가 넘어섰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설명이다.

성장세는 더욱 압도적이다. 군고구마의 올해 1월 전년 대비 매출성장률은 222.9%에 이르지만 호빵은 5.1%로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편의점에서 군고구마의 인기가 높아진 이유는 24시간 언제든지 저렴한 가격

에 날개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 군고구마를 굽는 편의점 수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편의점에서 본격적으로 군고구마 판매를 시작한 건 2017년부터다. CU는 도입 초기 300여 점포를 시작으로 2018년은 이보다 5배 늘어난 1500여 점포, 지난해에는 2000여 점포로 확대했다.

김민규 BGF리테일 신선식품팀장은 “겨울철 군고구마를 접할 기회가 갈수록 줄어들자 편의점이 그 대체 구매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군고구마 매출이 급증함에 따라 운영을 희망하는 점포들이 날로 늘어나 올해 연말에는 4000점까지 판매 점포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해외 제약시장 공략 나선 대기업, 신약개발 '3社3色'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올해 제약·바이오사업에 한층 힘을 쏟는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신약 등 가시적인 성과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SK와 삼성, LG 등 재계 상위 대기업들이 신약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가장 두각을 드러내는 기업은 SK다. SK는 중추신경계(CNS) 질환 치료제 개발이라는 한 우물을 판 지 26년 만에 잇따른 글로벌 성과를 알렸다.

SK바이오팜이 발굴한 수면장애 치료제 '솔리암페톨' (제품명 수노시)은 미국 FDA에 이어 21일 유럽의약품청(EMA) 허가도 획득했다. 연내 독일을 시작으로 내년 초까지 유럽의 대표적인 시장인 프랑스와 영국에 차례로 출시될 예정이다.

솔리암페톨은 SK바이오팜이 임상 1상 시험을 마친 후 기술수출한 혁신신약으로 수면장애 질환 글로벌 1위인 재즈파마슈티컬스가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글로벌 상업화 권리를 인수, 임상 3상을 완료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3월 허가를 획득, 7월부터 본격적인 시판에 들어갔다.

유럽에서는 수면무호흡증으로 인한 과도한 주간 졸림증을 개선하는 성인 대상 치료제로 유일하게 허가받으면서 벌써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SK바이오팜 관계자는 "현재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은 약 대신 양압호흡기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수요를 솔리암페톨로 전환하겠다는

회사	파이프라인	적응증	현황
SK바이오팜	솔리암페톨	수면장애	7월 미국 출시, 유럽 허가 획득
	세노바메이트	뇌전증	2분기 미국 직판
	카리스바메이트	레녹스-가스트증후군	미국 임상 1·2상
삼성바이오에피스 (바이오시밀러)	SB8	대장암, 폐암	미국·유럽 승인 신청
	SB11	황반변성	임상 3상 완료
	SB12	발작성야간혈색소노증	임상 3상 진행
LG화학	LR19074	통풍	미국 임상 2상 진입
	LR19019	만성염증질환	미국 임상 2상 진입

SK바이오팜 중추신경계 치료제 한우물 '세노바메이트' 美 직판

삼성바이오에피스 솔라리스 바이오시밀러 'SB12' 中서 임상 3상

LG화학 신약 과제 '30개→40개'로... 전방위 오픈 이노베이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K바이오팜이 국내 최초로 신약후보물 질 발굴부터 FDA 허가까지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진행한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 (제품명 엑스코프리)는 올해 2분기부터 미국 직판에 돌입한다. 이미 마케팅과 판매를 위한 100여 명의 현지 인력을 고용해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회사는 세노바메이트를 연 매출 1조 원 이상의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현재 유럽 허가도 추진하고 있다.

재계 1위 삼성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두 트랙 전략으로 글로벌 바이오 기업을 노린다. 이미 '베네팔

리', '임팔디' 등 미국과 유럽 허가 바이오시밀러를 4종을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후속 파이프라인 연구·개발(R&D)에 속도를 내고 있다.

FDA는 지난해 11월 대장암·폐암 치료제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SB8' (성분명 베바시주맵)의 바이오의약품 품목허가 신청(BLA) 서류 심사에 착수했다. SB8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글로벌 시장에 선보이는 두 번째 중앙질환 치료제다. 유럽에서도 판매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아바스틴은 전 세계에서 연간 8조2000억 원, 미국에서 연간 3조50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블록버스터 바이오의약품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자가면역질환과 중앙질환에 집중하던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을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했다. 안과질환 치료제 'SB11' (성분명 라니비주맵)은 지난 연말 임상 3상을 완료, 글로벌 허가를 준비하고 있다. SB11은 제넨텍과 노바티스가 공동 개발한 '루센티스'의 바이오시밀러다.

희소질환 치료제도 개발 중이다. '솔라리스'의 바이오시밀러 'SB12' (에콜리주맵)가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 솔라리스는 야간에 자다가 혈색소가 섞인 소변을 보는 발작성 야간 혈색소노증(PNH) 치료제로, 환자 1인당 치료비용이 수억 원대에 달하는 대표적인 고가 의약품이다.

특히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세계 2위 의약품 시장 중국을 정조준하고 있다. 중국 의약품관리국(NMPA)으로부터 SB12의 임상 3상을 승인받고, 상반기부터 중국 임상에 들어간다. 유방암 치료제 'SB3' (성

분명 트라스트주맵)에 이어 두 번째 중국 임상이다. 회사는 운용 자산 2조 원 규모의 헬스케어 벤처펀드 운용사 CBC 그룹과 파트너십을 맺는 등 중국 진출에 공들이고 있다.

대기업 제약·바이오사업의 터줏대감이라 할 수 있는 LG는 과감한 투자로 반등을 꾀한다. LG화학은 올해 생명과학분야 R&D에 1900억 원을 투자해 글로벌 혁신신약 개발에 매진한다.

매년 생명과학사업본부 매출의 25% 이상을 R&D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LG화학은 2018년 1238억 원에 이어 지난해 약 1650억 원을 쏟아부었다. 이를 바탕으로 전체 신약 과제를 30여 개에서 40여 개로 확대하고, 연구인력도 450여 명으로 늘렸다. 올해도 오픈이노베이션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보유 파이프라인 중에서는 통풍 치료제 'LR19074'와 만성염증질환 치료제 'LR19019'가 각각 임상 2상에 진입했다. LG화학은 미국 보스턴에 세운 '글로벌 이노베이션 센터'를 통해 이들 파이프라인과 전임상 단계인 비만 치료제, 당뇨 치료제 등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회사 관계자는 "글로벌 이노베이션 센터를 중심으로 기술 도입은 물론 기술 수출도 타진할 예정"이라며 "상용화를 목표로 다양한 신약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euna@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로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지아이이노베이션 "항암 병용치료제 역량 집중"

지아이이노베이션이 관계사(지아이셀·지아이바이옴)별 파이프라인 확장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지난해 회사 설립 2년 만에 중국 제약 기업 심시어에 9000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 성과를 낸 지아이이노베이션은 자사의 면역항암제와 함께 관계사 지아이셀의 세포치료제, 또 다른 관계사 지아이바이옴의 마이크로바이옴(체내 미생물)의 유기적인 병용요법(트리플 면역세포 병용치료)을 활용해 치료제의 확장성을 꾀한다는 목표다.

22일 지아이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올해 관계사들의 시리즈 A 펀딩으로 신약 개발을 위한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하반기 이들의 코넥스 상장을 계획하고 있다.

앞서 100억 원 유치가 진행된 지아이셀은 정밀 항암 면역치료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세포치료제 파이프라인 구성 및 임상을 위한 GMP(제조 품질관리기준) 시설 구축 등에 주력하고 있다. 이어 2월까지 200억 원 조달이 완료되면 누적 300억 원의 투자금으로 연구·개발(R&D)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아이셀의 주요 파이프라인은 병용을 염두에 둔 '항암'과 '항염증' 관련 세포치료제다.

주요 파이프라인으로는 암세포 공격에 핵심 역할을 하는 T세포의 유전적 변형 없이 항원 특이적으로 암세포를 공격하는 플랫폼 'GC-201' (X-Pres T Cell)이다. 이는 특정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면역세포를 효과적으로 면역세포 배양기에서 증식시킬 수 있도록 독자적으로 개발된 배양법을 이용한다.

지아이이노베이션·지아이셀 병용연구 파이프라인 현황

파이프라인	기전 및 효과	단계
GC-101(Nano NK cell)	화학 항암제가 부착된 자연살해세포(NK cell) 치료제	전임상
GC-201(X-Pres T Cell)	T 세포의 유전적 변형 없이 항원 특이적 암세포를 공격하는 플랫폼	전임상
GC-301(Drone iTreg cell)	염증성 장 질환을 타겟으로 한 염증억제 세포치료제	전임상

지아이이노베이션

파이프라인	기전 및 효과	단계
GI-101	이중조합단백질 기반기술인 G시머트 플랫폼을 이용해 개발한 면역항암제 임상 1상 준비 중	

관계사 지아이셀·지아이바이옴과 R&D·투자 유치 협력 GMP 시설·연구소 구축 통해 주력 파이프라인 확장 시동

장명호 지아이셀 대표이자 지아이이노베이션 창립자는 "GC-201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유전자 조작 과정이 생략된 세포치료제"라며 "면역세포 치료제(CAR-T)에서 요구되는 15년 동안의 장기독성 모니터링 임상연구가 필요하지 않으며, 기존 글로벌 제약사의 CAR-T 치료제 대비 비용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세계 최초로 CAR-T 치료제로 허가된 노바티스의 '킴리아'는 1회 투여에 약 5억 5100만 원, 길리어드의 '엑스카다'는 1회 투여에 약 4억3200만 원으로 현재 환자 부담이 큰 만큼 지아이셀은 효과를 높여 투여 횟수를 줄이고 비용도 절감하는 방안 등을 연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화학 항암제가 부착된 자연살해세포(NK cell)를 통해 기존 치료제(자연살해세포 치료제·화학항암제)보다 항암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줄여주는 'GC-101' (Nano NK cell)도 주력 파이프라인이다.

특히 지아이셀은 지아이이노베이션의 면역항암 후보물질들과의 병용요법

을 연구 중이다. 장 대표는 "연구 중인 병용요법은 최근 전 세계 면역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하는 연속적 면역치료(항암치료제+면역세포치료제) 방식과 같은 것"이라며 "기존 항암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등 암환우들의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염증성 장 질환을 타겟으로 한 염증억제 세포치료제 'GC-301' (Dro-ne iTreg cell)도 개발 중이다.

지아이셀은 파이프라인 개발 및 생산성 검증을 위해 경기도 성남에 GMP 시설 및 제 2연구소를 마련하고 2021년 임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불어 마이크로바이옴 전문기업 메디오젠과 조인트 벤처로 설립된 지아이바이옴은 올해 첫 시리즈 A 펀딩을 시작으로 대사질환 및 항암제 부작용을 줄이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장 대표는 "새로운 패러다임인 항암 병용치료법 활용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

한미약품-스탠다임 'AI 신약 물질 발굴' 맞손

한미약품이 글로벌 혁신신약 개발의 첫 단추인 신약 후보물질 도출을 위해 인공지능(AI)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한미약품은 AI 기반 신약개발 전문기업 스탠다임과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하고, 신약개발 초기 연구단계에서 AI 활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스탠다임은 인공지능 기반 선도 물질 최적화(AI-based lead optimization) 플랫폼인 '스탠다임 베스트(Standigm B-EST)' 등 자체 개발 AI 기술을 바탕으로 현재 항암, 비알콜성지방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협력으로 도출된 신약 후보물질은 한미약품 주도의 상업화 개발(임상·생산·허가)로 이어진다.

김진한 스탠다임 대표는 "제약 분야의 AI 기술 발전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한미약품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AI로 발굴한 신약 후보물질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세창(오른쪽) 한미약품 사장이 22일 한미약품 본사에서 스탠다임과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한 뒤 김진한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미약품

한미약품 대표이사 권세창 사장은 "AI는 신약개발 초기단계에서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혁신적 후보물질을 도출해 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스탠다임과의 연구 협력을 통해 유망한 후보물질을 지속적으로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euna@

유한양행, 파트너사들과 3.5兆 규모 후속 과제 협의

유한양행은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 2020'에서 연구·개발(R&D) 등 의미 있는 활동을 펼쳤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유한양행은 기술수출 관련 파트너들과 올해 일정을 공유하고 '레이저터널' 등 4건 총액 3조5000억 원 규모의 후속 과제를 협의했다. 현재 유한양행이 보유한 임상 단계 수준의 물질과 초기 개발 물질에 대해서도 기술수출을 목적으로 글로벌 빅파마들과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항암제와 NASH 등의 분야의 기술 도입을 위한 파트너링도 이어졌다.

우수한 글로벌 R&D 인재를 모집하기 위한 특별한 행사도 마련됐다. 국내 제약

사로는 이례적으로 UCSF, UC버클리, 스탠포드 등 총 3개 대학의 KOLIS(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 바이오, 메디컬 사이언스 전공자들 모임) 회원과 네트워크 강화와 더불어 3개 학교에 방문해 R&D와 이문은 시아를 소개하고 질의 응답을 진행했다.

윤태진 글로벌 BD 팀장은 "이번 JP모건 콘퍼런스는 유한양행의 비전인 '글로벌 유한'을 위해 지향점을 정립하는 시간"이라며 "한 차원 높은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기술, 물질뿐만 아니라 우수 인재들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확장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euna@

〈주가수익비율〉

‘PER 18배’ 低평가 받고 제자리 찾아가는 코스피

반도체 등 IT업황 개선 영향
삼성전자 9.5배로 전년대 상승
위안화 강세·한한령 해제 움직임
게임·면세점 등 저평가株 주목

무역분쟁과 이란 이슈로 조정을 겪었던 코스피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PER(주가수익비율)도 전년 대비 크게 오르면서 저평가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초 이후 강세장이 이어지면서 코스피 PER가 18.55배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9.98배)보다 약 2배 가까이 상승했다. 통상 PER가 낮을수록 원래 가치보다 저평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 PER 추이

*1월 21일 증가 기준 ※출처: 한국거래소

종목명	2019년	2020년
삼성전자	7.13배	9.5배
SK하이닉스	4.45배	4.46배
NAVER	24.62배	41.02배
현대차	8.47배	20.77배
LG화학	14.59배	17.93배
현대모비스	12.38배	12.08배
LG생활건강	31.35배	32.97배
삼성물산	29.65배	10.59배

돼 주가가 싸게 거래되고 있던 의미다. 코스닥도 44.18에서 48.84배로 소폭 올랐다.

PER는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특정 기업의 주가가 주당순이익(당기순이익/주식)으로 나눈 값이다. 한 회사의 주가가 1만 원이고, 1년에 1주당 얻는

순이익이 1000원이라면 PER는 10배가 된다. PER가 낮으면 기업이 내는 순이익에 비해 주가가 낮아 저평가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주식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곽현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현재 코스피 PER는 절대 수치로 보면 높지만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할 경우 적정 수준”이라며 “한국의 기업 이익은 반도체 업황 회복 여부에 달렸는데 점차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코스닥지수는 정부의 부동산 안정 대책이 성공하면 700대를 회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장주 삼성전자는 현재(21일 증가기준) 9.5배로 전년 동기(7.13배) 대비 상승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SK하이닉

스(4.46배), 네이버(41.02배), 현대차(20.77배), LG화학(17.93배), 현대모비스(12.08배), LG생활건강(32.97배), 삼성물산(10.59배) 등도 오르면서 제자리를 찾는 모습이다.

반면 제약바이오 업종의 경우 고평가가 지속되고 있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29.32배를 기록했다. 제일약품(235.92배), 신풍제약(184.87배), 한미약품(139.09배), 명문제약(124.63배), 셀트리온(87.56배), JW 중외제약(84.86배), 유한양행(49.65배) 등도 높은 PER를 기록했다.

증권가는 저평가된 종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코스피시장에서는 한일홀딩스(0.43배), 효성(0.48배), 세아

제강지주(0.67배), HDC(0.7배), 한신공영(0.99배), 대덕전자(1.67배), 계룡건설(1.84배) 등이 대표적인 저 PER 종목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애양제지(2.37배), 삼보판지(2.4배), KMH(2.57배), 케이피엠텍(2.82배) 등이 저평가 상태로 조사됐다.

이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1월 효과와 중소형주 유망주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데 올해 반도체 등 IT 업황이 개선되면서 투자 사이클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중소형주 실적을 크게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위안화 강세 환경과 한한령 해제 움직임으로 게임, 콘텐츠, 화장품, 면세업체 업종도 주목할 만하다”고 짚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매출 20%인 2912억 내부거래로 올려

중견그룹 일감돋보기

유라테크

유라테크그룹 내 오너가 소유한 코스닥 상장사가 최근 10년간 그룹 내 계열사들과의 거래를 통해 수천억 원대 일감을 따냈다. 이렇게 계열사들이 몰아준 일감은 상장사 전체 매출의 20%에 육박한다.

유라테크그룹은 1987년 5월 엄병운 회장이 설립한 세림공업(현 유라테크)를 모태로 한다. 엄 회장은 대한일보와 한국방송공사(KBS), 서울경제신문기자 등의 이력도 있다. 세림공업은 이후 세림테크, 유라테크로 상호를 바꿨으며 2001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현대기아차의 1차 협력사인 유라테크 그룹은 유라테크 외에 유라와 유라코퍼레이션, 유라하네스, 세원정밀, 유라엘텍 등 국내에만 5곳, 해외에는 멕시코와 중국, 튀니지, 러시아, 모로코, 베트남 등 세계 곳곳에 계열사가 있다. 2018년 말 국내 기준 그룹 종업원 수는 3300명에 달하며 그룹의 총 매출은 3조1627억 원, 총자산은 2조2621억 원이다.

유라테크그룹 계열사의 구체적인 지분 현황 등은 베일에 가려진 편으로 유라가 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맡고 있다. 유라는 엄 회장의 장남인 엄대열 유라테크 대표이사 외 특수관계자 지분이 100%다. 유라 유라코퍼레이션(50%), 유라하네스를(100%) 자회사

〈2009~2018년〉

유라테크 실적 및 내부거래 추이(개별기준)

매출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영업이익	31	64	2	-10
내부거래	397	368	367	311
비율	22.2%	18.2%	19.4%	16.2%

오너 일가 지분 70% 보유 2016년 매출 2000억 돌파 배당금 10년간 68억 쟁겨

로 두고 있다. 유라와의 직접적인 지분 관계는 없으나 유라테크와 마찬가지로 엄 대표이사가 유라엘텍 및 세원정밀의 최대주주로 있다.

아울러 엄 대표가 지배하고 있는 유라테크가 일감 몰아주기 논란의 중심에 있다. 유라테크는 작년 3분기 말 현재 엄 대표이사(41.12%)와 엄 회장(25.78%), 엄 회장의 부인 이숙연(2.78%) 씨 등 최대주주 지분이 69.68%에 달한다. 2000년만 해도 엄 회장 부자간 지분이 34.72%로 같았지만 2003년 엄 회장이 장내에서 매각한 60만 주를 엄 대표와 이 씨가 각각 40만 주, 20만 주씩 사들이면서 현재의 지분 구도를 완성했다.

유라테크는 자동차용 점화 코일, 점화 플러그를 제조 판매하며 현대기아차와 현대모비스 등을 주요 고객으로 안

정적인 매출을 보이고 있다. 2009년과 2010년 700억~800억 원 수준이던 매출은 2011년 1000억 원을 넘었으며 이후에도 꾸준히 성장해 2016년 2000억 원을 돌파했다. 하지만 전방산업의 침체로 2017년부터 매출이 다소 줄었다.

내부거래는 외형 성장과 함께 금액도 증가하는 양의 관계를 보인다. 2009~2010년 내부거래 비율은 14.2%에서 18.9%로 늘어나다 일감 규제를 앞두고는 정제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다 2013~2014년 25%대 전후를 넘나들며 최고치를 보이다 작년 3분기까지는 15%대 수준까지 낮아진 상태다. 계열 내 최대 매출처는 유라코퍼레이션이며, 이러한 매출 거래 외에 유라테크가 유라코퍼레이션과 유라로부터 사들이는 매입거래 규모 역시 한해 100억 원을 훌쩍 넘는다. 이렇게 유라테크가 내부거래로 올린 매출만 2009~2018년까지 10년간 2912억 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매출 1조4806억 원의 19.7%에 해당한다.

한편 내부거래와 현대기아차 1차 벤더라는 위치를 갖고 안정적으로 성장한 유라테크는 10년간 배당도 꾸준하게 해왔다.

배당 규모는 2009년 5억 원에서 2016~2017년 15억 원까지 늘었지만 실적 감소로 2018년에는 7억 원으로 줄어든 상태다. 10년간 지급된 배당금은 97억 원이며, 70%에 육박하는 최대주주 지분을 고려하면 68억 원가량을 오너 일가가 챙긴 것으로 보인다.

조남호 기자 spdran@

체질개선 효과 유동성 회복세

상장사 재무 분석

아모텍

코스닥 상장사 아모텍이 유동성 부문에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유동부채를 줄이고 비유동부채를 늘리는 등 체질개선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아모텍의 유동비율은 2018년 90%대에서 지난해 3분기 기준 146.32%까지 올랐다. 시장에서는 통상 150% 수준을 양호하다고 판단한다.

지난해 아모텍은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에서의 증감이 있었다. 유동자산은 전년 말 대비 270억 원 늘었고 유동부채는 309억 원이 줄었다. 유동자산의 경우 현금및현금성자산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아모텍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605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2배 증가했다. 순현금흐름이 늘어난 까닭인데, 지난해 순이익은 다소 감소해 영업활동에서의 현금흐름은 크게 늘지 않았지만 재무활동에서의 현금 유입이 많았다.

이로 인해 아모텍의 순현금흐름은 전년 대비 플러스 전환한 303억 원으로 집계됐고, 자연스럽게 유동자산 규모도 늘어났다.

유동부채는 유동성 장기부채를 상환하면서 대폭 줄었다. 지난해 유동성 장기부채 상환으로 빠져나간 현금흐름은 723억 원이다. 그 덕분에 유동성 장기부채는 2018년 816억 원에서 지난해 380억 원까지 감소했다. 유동부채를 대폭 상환한 대신 빈 자리는 장기차입금 등 비유동부채의 조달로 메

아모텍 유동비율 추이



작년 723억 장기부채 상환 3분기 영업이익 159% 상승 차부품 매출 성장 국면 진입

왔다. 아모텍의 장기차입금은 958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재무 환경에서 안정을 찾아가는 가운데 실적 또한 개선 중이다. 3분기 연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4.29% 증가한 701억 원, 영업이익은 158.66% 늘어난 47억 원이다. 앞서 2분기 영업 적자를 기록한 탓에 누적 실적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3분기 흑자전환에 성공한 데 이어 올해 실적 전망도 긍정적이다.

김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아모텍은 올해부터 새로운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MLCC와 차량용 안테나 모듈 등 다양한 성장동력이 매출로 구체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의영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2018~2019년 세라믹 부품 부진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올해부터는 다시 성장성이 부각될 전망”이라며 “자동차 관련 부품 매출은 지난해 900억 원에서 올해 1160억 원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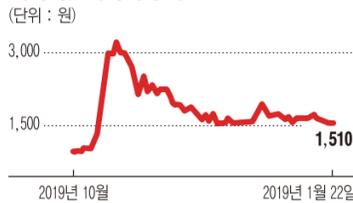
에이치엘비파워 CB투자자, 1년 만에 수익률 100%

에이치엘비파워 CB(전환사채) 투자자들이 1년 만에 100%에 달하는 수익을 올릴 전망이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에이치엘비파워는 7·8회차 CB 66억 원어치에 대한 전환청구권이 행사됐다. 952만 6580주 규모로 총주식 수 대비 11.68%에 달한다. 에이치엘비파워는 해당 CB를 2018년 9월과 2019년 1월에 개인투자자 대상으로 발행했으며, 전환가액은 각각 686원과 769원이다. 에이치엘비파워의 전일 증가가 1520원이란 점을 고려하면 이들은 약 1년여 만에 100%가 넘는 수익을 올리게 됐다.

앞서 에이치엘비파워는 2016년부터 본

에이치엘비파워 주가



격적으로 투자유치에 나섰다. 이 기간 동안 이 회사는 모두 7차례(2회차부터)에 걸쳐 총 510억 원 규모의 CB를 발행했다. 상장사라는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금을 조달한 것이다. 특히 7, 8회차 CB의 경우 전환청구권 행사 기간이 각각 지난해 9월, 이달 18일부터였다. 전환권 청구 기

간이 도래하자마자 전량 전환된 것이다. 이번 전환청구권 행사를 마지막으로 CB 미상환 잔액은 없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7·8회차 CB의 전환청구권 행사로 새롭게 상장되는 주식 수는 지난해 9월부터 총 2800만여 주다. 이는 총주식 대비 45% 수준이다. 실제 현재 주가는 52주 최고가를 기록한 지난해 10월 3750원 대비 60% 가까이 하락한 상태다.

에이치엘비파워 관계자는 “이번 전환청구권 행사로 오버행(과잉공급) 우려가 해소돼 긍정적”이라며 “CB가 모두 전환돼 추가로 주가를 압박할 물량이 더 이상 없다”고 설명했다. 박기영 기자 pgy@

bithumb 빗썸

빗썸 지수 (2020년 1월 22일 17:00, KST)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
비트코인캐시	401,100	10,900 (2.8%▲)	모네로	75,550	1,350 (1.8%▲)
리플	272	4 (1.5%▲)	비트코인골드	13,130	30 (0.2%▲)
라이트코인	67,000	1,400 (2.1%▲)	이더리움 클래식	10,720	760 (7.6%▲)
대시	127,400	-300 (0.2%▼)	퀀텀	2,311	103 (4.7%▲)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집값 뛰고 대형건설사도 '눈독'... "이참에 고급 브랜드로 바뀌"

정비사업장마다 '시공사 갈아타기' 바람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 정비사업지에서 '시공사 갈아타기'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시공사 교체 움직임이 하루 이틀된 일은 아니지만 최근 집값 상승세를 타고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를 달기 위해 기존 시공사와 계약을 파기하는 일이 더 잦아지는 분위기다.

결별의 이유는 사업장마다 제각각이지만 대형건설사로 시공사를 바꿔 정비사업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속내가 담겨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적인 견해다.

최근 대전 서구 도마·변동 1구역 재개발 조합은 시공사 금성백조주택 측에 시공사 선정 취소와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조합은 18일 임시총회를 열어 시공사 계약 해지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그 사이 조합원 간 갈등이 깊어지고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지면서 결국 총회는 무산됐다. 금성백조주택은 시공사 지위를 지키기 위해 사업 관련 사항을 전반적으로 재협의를 하고 갈등을 봉합했다. 건설사 입장에서 최악의 상황은 피한 셈이다.

일부 조합원이 금성백조주택의 시공사 교체 카드를 꺼내는 사유는 '브랜드 약소'였다. 대전 집값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오르고 있는 가운데 금성백조주택이 가진 '에미지'의 브랜드 파워가 집값을 더 밀어 올리기에 미약하다는 이유가 깔려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홍은13구역 재개발 조합

시공사 교체하거나 교체 예정인 주요 재개발 사업지

사업장	기존건설사	교체 건설사	사업단계
서울 서대문구 홍은13구역	라인건설	HDC현대산업개발(예정)	관리처분인가
서울 성북구 보문5구역	호반건설	HDC현대산업개발	관리처분인가 예정
대전 서구 도마·변동 1구역	금성백조주택	시공사 재선정 철회	관리처분인가 예정
부산 범천1-1구역	중흥토건	올해 시공사 재선정	관리처분인가

대전 도마·변동1구역, 금성백조서 교체하려다 충돌 보문5구역, HDC현산 손잡아... 홍은13구역도 재선정 부동산 규제 강화로 '물량 가뭄' 대형사로 잇따라 바뀌

도 기존 시공사인 라인건설과 결별하며 이달 초 시공사 선정 입찰에 나섰다. HDC현대산업개발만 재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 입찰이 무산돼 결국 유찰됐지만 조합은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시공사를 뽑을 예정이다.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 총회는 내달 열릴 예정이다.

공사비 575억 원 규모의 서울 성북구 보문동 보문5구역 재개발 사업장 역시 지난 달 호반건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HDC현대산업개발과 손을 잡았다. 2016년 중흥토건을 시공사로 선정한 부산 범천1-1구역 역시 올해 시공사를 다시 선정할 계획이다.

시공사 교체는 하루 이틀 새 발생한 낯선 풍경은 아니다. 정비사업장 시공사로 선정된다고 해도 분양을 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만큼 그 과정에서 사업비 증액, 마감제 등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 이견이 발생하고 최악의 경우 시공사를 바꾸면서 법적 다툼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서 시공사 교체 바람이 더 잦아지는 분위기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조합원 이주

비 대출 규제 등 정부가 정비사업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면서 입감이 부족해진 대형건설사들이 과거엔 들떠다 보지 않았던 사업장까지 눈독을 들이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시공사 선택권을 가진 조합들이 이 같은 분위기를 타고 상대적으로 브랜드 파워가 강한 대형건설사의 아파트 브랜드를 내걸어 조합원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속내가 깔려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정비사업 특성상 수년 동안 사업이 진행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호황과 불황, 정부의 각종 정책의 영향을 다양하게 받고 이로 인해 여러 문제가 나타난다"면서 "더 나은 브랜드를 내걸어 일반분양가를 높이고 향후 집값도 띄우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부산 '맨해튼썬시티' 오피스텔
대형기업, 396실 규모 내달 분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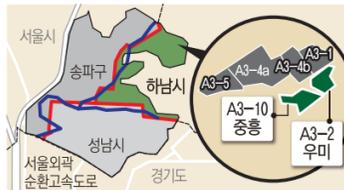
대형기업이 부산 진구 범천동에 짓는 오피스텔 맨해튼썬시티(조감도)가 내달 분양된다.

지하 1층~지상 20층짜리 단층형 5개 타입 330실(전용면적 24~28㎡)과 복층형 5개 타입 66실(전용 24~28㎡) 등 총 396실 규모다. 지상 1~2층은 상업시설로 구성된다.

신안종합건설이 위탁해 아시아신탁이 시행하는 오피스텔로 부산 금융단지 중심지인 문현금융단지 인근에 들어선다. 대표 오피스 상권인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와 반경 1km 이내에 217개의 학원이 몰린 부산 최대 학원 밀집지다.

문현금융단지엔 현재 관련 기관들의 입주 진행 중이다. 인근에선 부산 도심철도 지하화, 범천동 철도차량기지 이전사업 등이 예정돼 있다. 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2024년 완공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올해 위례신도시 민간 아파트 분양 예정 단지
※지역: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단지명	면적(전용)	가구수	분양시기
위례 중흥S-클래스	101~210㎡	475가구	2월(예정)
위례신도시 우미린2차	99~112㎡	420가구	3월(예정)

작년 '청약 광풍' 위례신도시 상반기에 895가구 쏟아진다

'중흥S클래스' 이달 말 분양가 심사 '위례 우미린2차'는 3월 분양 예정 50% 추첨제... 저가점자 노려볼 만

지난해 수도권 분양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위례신도시에서 올해 895가구가 더 공급된다. 위례신도시에 입성할 수 있는 민간 분양아파트로는 거의 마지막 '로또 단지'다. 이들 단지가 지난해 '호반써밋 송파'에 이어 또다시 청약 광풍을 몰고 올지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위례신도시에서 총 895가구가 분양된다. 중흥건설의 '위례 중흥S-클래스' 475가구와 우미건설의 '위례신도시 우미린 2차' 420가구다.

위례 중흥S-클래스는 이달 말 지자체의 분양가 심사를 앞두고 있다. 분양가 책정을 둘러싼 건설사와 지자체 간 줄다리지만 없다면 이 단지는 당장 내달 분양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위례신도시 우미린 2차는 3월로 분양이 예정돼 있다.

두 단지는 모두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위례신도시에 들어선다. 위례 중흥S-클래스는 전용면적 101~210㎡, 위례신도시 우미린 2차는 전용 99㎡와 112㎡로 모두 중대형 아파트로만 구성된다. 전용 85㎡ 초과 중대형 주택형은 입주 물량의 50%를 가점제로 모집하고 나머지 절반은 추첨제

로 가린다. 따라서 청약가점이 낮은 30~40대 무주택자들도 공격적으로 청약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공공택지지구인 위례신도시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지자체들의 분양가 낮추기가 계속되고 있는 데다 분양을 앞둔 두 단지의 경우 지난해 말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에서 나온 '호반써밋 송파'와 달리 하남시에 위치해 분양가가 더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 호반써밋 송파 1·2차의 분양가는 각각 3.3㎡당 2204만5000원, 2268만 원이었다. 주변 단지의 현재 시세보다 무려 3억~4억 원가량 낮아 '잡으면 로또'라는 입소문이 줄을 이었다.

전문가들은 위례신도시 아파트 단지는 분양하는 족족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이미 검증된 상품이라는 점에서 올해 나올 분양 단지들도 흥행에 성공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호반써밋 송파 아파트는 모든 주택형의 분양가가 9억 원이 넘어 중도금 집단체출을 받을 수 없고 분양권 전매도 8년으로 길지만 청약경쟁률이 꽤 높았다"며 "지난해 위례신도시 하남지역에서 나온 분양 물량이 모두 흥행한 만큼 분위기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대한민국의 자산은 무엇일까요?

노후청사의 변신으로
활력이 넘치는 우리 동네

위기를 딛고
새롭게 도약하는
중소기업의
힘찬 기계소리

빛 부담을 덜고
다시 품는
재기의 희망

캠코가 국민과 기업의 재기를 돕고
국가자산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www.kamco.or.kr

〈부영그룹 회장〉

‘횡령·배임’ 이종근, 형량 줄었지만 법정구속

“준법감시실 운영... 노력 인정” 항소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4300억 원에 달하는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종근(사진·79) 부영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절반의 형량을 감형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죄질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회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구속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회사자금 횡령으로 구속되고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부영그룹의 사실상 1인 주주이자 최대주주인 동시에 기업 회장으로 자신의 절대적인 권리를 이용, 임직원과 공모해 계열사 자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반면 재판부는 부영그룹이 최고경영진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준법감시실을 신설한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들었다. 재판부는 “2018년 5월 준법감시실을 신설했고, 외부인이 독자적으로 기업집단의 준법감시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임 계약을 체결해 준법감시를 강화하는 등 준법경영을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혐의에 대해 1심 유무죄 판단을 일부 뒤집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아들이 운영하던 영화 제작업체 부영엔터테인먼트에 회사돈 45억 원을 대여해 준 혐의를 1심과 달리

유죄로 봤다. 영화의 흥행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검토 없이 금액을 대여했고, 회사와의 시너지 효과도 없어서 합리적 경영 판단의 범위 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004년 취득한 차명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전환하고, 일부를 증여세로 납부해 계열사에 5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회장은 4300억 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횡령과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하면서도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당시 유죄로 인정된 금액은 횡령 366억5000만 원, 배임 156억 9000만 원 등이다. 김종용 기자 deep@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2020년 업무보고 하는 박원순 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등 참석자들이 22일 오전 서울시장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정한 출발선, 서울시가 보장합니다’ 2020년 대시민 업무보고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뉴시스

설 연휴 배탈나면?

주변에 문 여는 병원·약국 e-gen앱·120·119로 확인

서울시는 22일 설 명절 연휴기간 이용할 수 있는 응급 및 당직 의료기관, 휴일지킴이 약국을 각각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 운영되는 응급의료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동부병원,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해 △관역·지역응급의료센터 31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18개소 △응급실 운영병원 18개소 등 총 67개소다. 당직의료기관은 연휴기간 중 환자의 1차 진료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외 병·의원 1829개소가 응급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휴일지킴이약국은당직의료기관 인근에 있는 3385개소가 운영된다.

연휴기간 거주지 주변에서 문을 여는 병·의원, 약국은 인터넷, 전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e-gen)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앙응급의료센터 각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국번 없이 120(다산콜센터)이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로 전화해 안내받을 수도 있다.

안전상비의약품(소화제, 해열진통제, 감기약, 파스)은 편의점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7252곳에서 구입할 수 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설날 명절 기간 배탈, 감기 같은 경증 질환은 응급실로 가지 않고 집 근처 병·의원, 보건소,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 확인해 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최태원, 법정서 노소영에 지급한 생활비 내역 공개

가세연 상대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소송서 의혹 반박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조 원대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매달 200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박범석 부장판사)는 22일 최 회장이 강용석 변호사와 유튜브 방송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등을 상대로 낸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소송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대리인은 법정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준 생활비 계좌이체 내역을 공개했다.

가세연이 제기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다.

최 회장 측이 실물 화상기를 통해 공개

한 생활비 계좌이체 내역에 따르면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최 회장은 매달 2000만 원씩 노 관장에게 입금했다. 최 회장 측은 “2016년 이전에는 노 관장이 최 회장의 급여 통장을 가지고 있어서 따로 줄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최 회장이 잘 알려진 대기업을 이끄는 기업인이긴 하지만, 생활비를 줬는지까지 가세연에서 드러낼 필요가 있냐”고 물었다. 이에 가세연 측은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합계액이 1조 원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국민의 관심사인 내용”이라고 대답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9월 가세연의 ‘슬기로운 감빵생활’ 편에서 최 회장이 수감 시절 전국 교도소에 라텍스 베개 10만 개를

기증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말했다. 또 최 회장이 이혼 소송 중인 노 관장에게 그동안 생활비와 주택 관리비를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최 회장 측은 지난해 12월 가세연을 상대로 “해당 내용에 대한 방송을 중단하고 유튜브 등에 이를 게시하거나 유포하지 말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한편 최 회장은 2015년 동거인인 김희영 T&C재단 이사장과의 사이에 딸이 있다며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이 반대해 이듬해 2월 이혼소송이 시작됐다. 노 관장은 지난해 12월 4일 위자료 3억 원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 42.3%(1조3000억 원 상당)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김종용 기자 deep@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육체피로 | 신경통 | 눈의피로 | 기미·주근깨

한 끼의 완성 베콤씨[®]



“예탁원 평생 숙원 ‘전자증권’ 총대... 시스템 구축 뿌듯”

W 기획 인터뷰 김 정 미 예탁결제원 증권등록본부장

“겨울에는 봄의 길들을 떠올릴 수 없었고, 봄에는 겨울의 길들이 믿어지지 않는다.” 17일 이투데이와 만난 김정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등록본부장은 전자증권제도 시행 이후 소회를 묻는 질문에 김훈 작가의 글을 인용했다. 예탁결제원 전자증권 추진본부장을 맡으면서 전자증권 시스템 구축을 책임졌던 김 본부장은 제도 시행 4개월 차인 현재 부담에서 벗어나 행복한 기분이라고 전했다.

◇전자증권제도 9월 16일 시행... 치열했던 2년 =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TF를 이끌던 2년의 시간은 김 본부장에게 사투(死闘)의 기억으로 남았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 증권 없이 권리가 전자적 등록으로 발행·유통·관리 및 행사되는 제도다.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역점 사업 중 하나로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추진했으며 예탁결제원은 도입을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았다. 전자증권제도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국 중 독일, 오스트리아, 우리나라 등을 제외한 33개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었다.

1991년 예탁결제원의 첫 여성 대졸 사원으로 입사한 김 본부장은 2001년 최초의 여성 팀장, 2007년 최초의 여성 부사장이 됐다. 이후 2017년 증권 유관기관 역사상 첫 번째 여성 임원 승진과 함께 예탁결제원의 평생 숙원이던 전자증권제도 도입의 총대를 짰다.

전자증권 시스템은 한 치의 오차 없이 진행돼야 했기에 TF를 맡은 것은 큰 부담이었다. 예탁결제원과 시스템이 맞물리며 돌아가는 254개 기관, 1500여 개 개별 시스템에 대한 테스트도 필수적이었다. 제도 시행 후 10년간 실물증권과 전자증권 2개의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하는 점도 매우 어려운 과제였다.

김 본부장은 “지나놓고 보니 여유 있게 얘기하지만 준비할 때는 부담과 스트레스에 거의 죽는 줄 알았다”며 “다른 차세대 시스템은 연기라도 가능하지만 전자제도 시스템은 9월 16일 시행이 연기될 수 없었던 만큼 직원 모두 긴장 속에서 치열하게 일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법 시행령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시스템 구축을 위해 254개 기관의 협력을 얻는 과정이 가장 어려웠다고 설명한다. 그는 “2016년 3월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공포 이후 2019년 6월 시행령 제정까지 3년 3개월이 걸렸다”며 “시행령 이전까지 급할 게 없던 254개 금융기관의 협조를 끌어내는 데 무척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

핵심 과제는 제도 시행 이후 어떤 오류도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전자증권 시스템의 개발 기간이 19개월인데 테스트 기간만 9개월이 소요됐다.

김 본부장은 입사할 때부터 전자증권과 인연을 맺었다. 그는 “1991년 입사하고 조사부에 있을 당시 ‘실물증권의 무권화’가 화두여서 직접 조사하기도 했다”며 “입사 때부터 과제로 삼았던 것을 직접 현실화한다는 자부심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전자증권제도를 마땅히 도입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이 힘든 시간을 견디게 했다”고 회고했다.

◇더딘 비상장사 전자증권 등록... “시간 지나면 해결될 일” = 시행 4개월째를 맞은 전자증권제도는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 중이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제도 시행일인 지난해 9월 16일 기준으로 상장사와 비상장사의 미제출 실물주식 수량 비중은 각각 0.68%, 12.32%다. 이 수치들이 지난해 말일 기준으로 각각 0.5%, 10.48%로 감소했다. 예탁결제원은 미제출 실물주식 보유 주주 등을 대상으로 전자증권 등록을 위해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비상장사 전자증권 등록이 비교적 더딘 점에 대해 김 본부장은 ‘시간 문제’라고 말



김정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등록본부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예탁원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입사때 ‘실물증권 무권화’와 인연
2017년 시스템 구축 TF 이끌어
개발만 19개월 테스트에 9개월
일·가정 양립 어려운 환경이지만
남보다 2배 열심히 일하는 대신
육아휴직은 반드시 가세요**



한다. 그는 “전자증권제도는 ‘자본시장 실명제’라는 말이 있는 만큼 시장 투명성에 기여하기 때문에 주주들이 더 안전한 투자를 위해 회사에 전자등록을 요구할 것으로

제원은 정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원에 대해서 늘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첫 여성’ 타이틀... “다음에는 남자로 태어날래요” = 전자증권제도 준비는 김 본부장이 TF를 이끌며 새로운 원칙을 시험해 본 시기이기도 했다. 첫째는 ‘화내지 말자’, 둘째가 ‘반대에 부딪히면 에둘러 가자’다. 국가적 프로젝트를 수행한다고 해서 조직과 동료와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켜선 안 된다는 생각이었다.

그는 “거의 수양하는 느낌으로 관리자 역할을 했다”며 “TF를 만들 때 현업 부서 인력을 많이 끌어오다 보니 도출되는 불만도 늘 고려해야 하는 문제였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유재훈 전 사장 시절 직책자 강임(강등)을 당한 37명 중 1명이었다. 이때의 경험이 조직과 자신을 새롭게 돌아보는 계기였다고 한다. 그는 “원래 회사에서 별명이 ‘독사’였다”며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 정해진 근무시간에 맡은 소임을 다하려고 온전히 집중하다 보니 주변 사람을 채근하고 말이 험하게 나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부장에서 팀장으로 강등되는 일을 겪으면서 2년의 공백 시간이 생기자 나도 직장생활을 해오며 남에게 상처를 준 적은 없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며 “일을 효율적으로 빨리 처리하는 것과 동료들을 챙기며 조직이 잘 굴러가도록 하는 것 사이에서 가치 판단을 새로 하게 된 계기였고, TF를 운영하며 세운 원칙도 이때의 경험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에게 ‘첫 여성 팀장, 부장, 임원’이라는 타이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묻자 그는 “다음에는 남자로 태어내고 싶다”고 농담했다.

그는 “일과 가정을 둘 다 챙겨야 했던 선배로서 승진 욕심이 있는 후배 직원들에게 남보다 2배 열심히 하고 육아휴직은 반드시 가라는 조언을 하게 된다”며 “아직은 우리 사회에서 가정 있는 여성이 일에서 큰 성취를 얻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신철 기자 camus16@

마음과 마음을 잇는다.

주는 즐거움 받는 기쁨 - 금강상품권

BAG - E9S9J61FE7 / E9S9J64FE4 / E9P5J62FE7 / H9BJ550FE3 / H9CJ552FE2
 SHOES - WWB1951KR85 / WWB5405KR37 / WWB1959KR32 / WWB8773KR17 / WWB8772GS28

주는 즐거움 받는 기쁨 금강상품권 NCSI 남성 정장구두 부문 (16년 연속) 고객만족도 1위 1 구두·캐주얼화 부문 (21년 연속) 브랜드파워 1위 www.kumkang.com 고객센터문의 1577-4884

투자 성향 따라 '성장·인컴·밸런스드' 선택

미래에셋대우

Global X 포트폴리오 자문형 랩

미래에셋대우는 검증된 운용능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ETF 운용사 글로벌 X가 자문하는 'Global X 포트폴리오 자문형 랩'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출시한 Global X 포트폴리오 자문형 랩은 유형 안에 라인업된 3가지 포트폴리오(혁신성장, 인컴, 밸런스드) 중에서 한 개의 포트폴리오를 선택해 투자하는 글로벌 랩어카운트로, 투자 성향에 따

라 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혁신성장 포트폴리오는 기존 삶과 투자 섹터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는 로봇, 빅데이터, 헬스케어, 전기차 ETF 등에, 인컴 포트폴리오는 고배당주식, 리츠, 우선주, MLP, 커머드콜 전략 ETF 등에 주로 투자한다. 마지막으로 밸런스드 포트폴리오는 혁신성장과 인컴 포트폴리오에 균형 있게 투자하며 투자 대상은 국내외 상장된 ETF로 유동성, 자산규모 등 자체 기준에 따라 선별된 우량 ETF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 Global X는 테마형 ETF뿐만 아니라 안정성 관점에서 특화된 인컴(In-



come)형 ETF에 강점을 두고 있는 ETF 전문 운용사다. 특히 UBS와 메릴린치에서 소위 '메이머 모델'로 불리는 ETF 모델 포트폴리오를 통해 8년간 자산을 400억 달러까지 키운 Global X의 존 메이머 CIO가 미래에셋자산운용(한국)에 직접 자문을 하는 형태

다. 미래에셋자산운용(한국)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ETF 포트폴리오 솔루션을 제공한다라는 점은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또 라인업된 3가지 포트폴리오 간에는 유선상 유형 변경이 가능해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래에셋대우 이상걸 WM총괄사장은 "이번에 출시한 Global X 포트폴리오 자문형 랩은 Global X의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ETF와 한국과 홍콩, 캐나다와 호주, 미국, 중남미를 잇는 미래에셋의 글로벌 ETF 네트워크가 결합해 높은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투자 성향에 따라 성장형과 인컴형 전략 선택이 가능한 만큼 랩어카운트 계약으로 여러 가지의 ETF에 투자해 더 손쉽게 분산투자 가능한 것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환헤지로 변동성 최소화... 매월 리밸런싱

NH투자증권

NH-AmundiQV글로벌포트폴리오 펀드

세계 시장에서 대내외 이슈로 변동성이 확대하는 가운데 NH투자증권이 판매하는 'NH-Amundi QV 글로벌포트폴리오'가 주목받고 있다.

'NH-Amundi QV글로벌포트폴리오' 펀드는 국내·미국·유럽 상장 ETF에 분산 투자하는 펀드다. NH투자증권에서 자산배분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NH-Amundi 자산운용에서 제공받은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환헤지를 통해 변동성을 최소화한다. 또 시장 상황에 맞춰 월간 단위로 리밸런싱하는 EMP(ETF Managed Portfolio) 펀드라는 점이 특징이다.

EMP 펀드의 핵심은 포트폴리오의 선정과 관리다. NH투자증권은 'QV포트폴리오'로 자산배분형 펀드 및 랩 등의 차별화된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면서 그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 말 기준 ISA 일일형 모델포트폴리오 회사별 누적 평균수익률 1위(16.67%)를 기록했다.

'QV포트폴리오'란 NH투자증권이 고객에게 제시하는 모델 포트폴리오 브랜드다. 펀드, 랩, ISA일일형 등 다양한 상품으로 출시돼 있어 한번의 가입으로 고객이 편리하게 QV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을 따라가며 투자할 수 있다.

특히 QV포트폴리오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Risk



Budgeting(위험배분)에 근거한 자산배분 모델을 중심으로 글로벌주식 Scoring시스템, 세부 카테고리별 펀드 선정 로직 등의 다양한 정량적 데이터와 리서치센터의 시장 판단을 결합해 최적의 투자 안을 도출한다. QV포트폴리오의 운용과 관리를 담당하는 전담 조직을 두고 매일 모니터링, 매주 전략회의를 통해 글로벌 시장과 상품 성과를 긴밀하게 체크한다. 또 매월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 상품 전문가 등 각 부문의 투자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산배분전략위원회를 열어 QV포트폴리오 운용 결과를 점검하고 리밸런싱 여부를 결정해 운용하고 있다.

NH-Amundi QV글로벌포트폴리오 펀드는 NH투자증권의 QV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매월 리밸런싱을 진행하고 10가지 내외의 글로벌 ETF에 분산 투자해 시장 상황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익을 추구한다.

실물자산 채권 분산투자 1년 수익률 9.82%

<국내 설정 A클래스 기준>

KB증권

KB글로벌리얼에셋인컴펀드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은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로 인해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주식형 대비 낮은 변동성과 안정성을 지닌 상품들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KB증권은 전 세계 투자등급 실물자산 채권과 하이일드 실물자산 채권 간의 적극적인 자산배분을 통해 다양한 금리 사이클에서 양호한 성과를 기대할 수 'KB글로벌리얼에셋인컴펀드'를 추천하고 있다.

'KB글로벌리얼에셋인컴펀드'는 전 세계 실물자산 채권에 분산 투자한다.

실물자산 채권이란 인프라, 부동산, 천연자원 등을 소유 또는 운영하는 기업이나 실물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발행한 투자등급 회사채, 하이일드 회사채 및 대출채권을 말한다.

실물자산 채권은 기반이 되는 실물자산의 자산 보장 효과, 경기 상황에 관계 없이 지속되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 등으로 인해 일반 회사채 대비 부도율은 낮고 회수율은 높은 특성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비교적 높은 인컴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도 부각되고 있다. 글로벌 금리가 낮아지고 채



권 기대수익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실물자산 관련 투자 유니버스의 평균 만기수익률(YTM)은 연 3~5% 수준으로 다른 글로벌 국제나 회사채 대비 우수하다.

'KB글로벌리얼에셋인컴펀드'는 2018년 6월 27일 국내 설정 후 A클래스를 기준으로 설정 이후 수익률 9.72%, 최근 1년간 9.82%의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다.

펀드 운용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300조 원 이상의 실물자산을 운용하는 글로벌 대체투자 전문 브룩필드자산운용(Brookfield Asset Management)이 담당한다.

'KB글로벌리얼에셋인컴펀드'는 투자 상품으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KB글로벌리얼에셋인컴펀드'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KB증권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베이비부머 안전자산 장기운용에 적합

신한금융투자

신한BNPP글로벌밸런스EMP펀드

신한금융투자는 변동성을 낮추고 꾸준히 자산을 관리하려는 고객에게 미국에 상장된 ETF에 투자하는 '신한BNPP글로벌밸런스EMP펀드'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이 펀드는 신한금융투자의 자문을 받아 신한BNPP자산운용이 운용한다.

'신한BNPP글로벌밸런스EMP펀드'는 무역분쟁, 중동갈등, 민족주의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시장 예측이 어려운 환경에서 경기방어자산 분산투자와 상승대응자산 선별 투자로 장기적으로 안정된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다.

장기 성과와 방어력이 검증된 6개의 글로벌 핵심자산에 대한 분산 투자를 통해 경기 침체기에도 안정적 수익을 목표로 한다. 6개의 핵심자산은 미국채, 투자등급회사채, 미달러, 금, 저변동성 주식과 퀄리티(기업의 질적지표가 우수한) 주식이다. 이 펀드는 최적화 기법을 통해 전략적 투자비중을 산정한다.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 자산 간 비중을 조절하는 전술적 배분을 거쳐 각 자산별 최적의 ETF를 선별해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된다. 또 환율이 투자 수익에 미치는 영향력을 깊이 인식하고, 환율을 '전략적 자산배분'의 틀에서 운용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경기에 민감한 것을 감안해 글로벌 자산배분 시 100% 환헤



지를 고집하기보다 일정 수준 환노출 포지션을 보유해 전체 펀드의 위험을 낮추는 것을 추구한다.

투자자는 한번의 펀드 가입만으로 다양한 글로벌 자산에 투자하고, 전문가의 자산배분 전략에 따라 알아서 리밸런싱을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점은 연금자산(퇴직연금, 개인연금, IRP)과 같이 장기로 운용하며 편입자산을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상품에 유리하다.

'신한BNPP글로벌밸런스EMP펀드'의 총 보수비용은 연 1.055%이고(Class C1기준) 퇴직연금전용 클래스는 연 0.735%며 환매 수수료는 없다.

김중현 신한금융투자 글로벌자산배분전략부장은 "주식 비중이 크지 않고 안전자산 위주로 편성된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변동성을 낮추고 꾸준한 수익률을 추구하고 있다"며 "연금과 IRP 계좌 운용에 적합함은 물론 은퇴를 앞두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에게도 효과적인 자산관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주식·채권·리츠 투자 5% 수익 실현

<연평균>

현대차증권

피델리티 글로벌 멀티에셋인컴펀드

지난해 글로벌 시장은 미중 무역분쟁 여파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식과 채권 모두 좋지 않은 성과를 보였다. 이에 앞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시장과의 상관관계가 낮으면서도 절대수익률을 추구하는 상품의 메리트가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일반 채권형 상품의 경우 금리가 인상될 경우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자본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리 인상기에도 안정적으로 시장 대비 초과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인컴 펀드 스타일의 상품이 주목받고 있다. 인컴 펀드는 채권 및 고배당주, 부동산 등에 투자해 발생하는 수익을 꾸준히 쌓아가는 펀드다. 목표수익률은 타 주식형 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지만 변동성이 작은 특징이 있다. 이런 글로벌 인컴 전략을 사용하는 펀드 중에서 현대차증권은 피델리티 글로벌 멀티에셋 인컴펀드를 추천하고 있다.

피델리티 글로벌 멀티에셋 인컴펀드는 우수한 성과로 유명한 글로벌 멀티에셋 전략 전문 글로벌 운용사인 피델리티의 글로벌 멀티에셋 펀드에 재간접으로 투자하는 펀드다. 해당 펀드는 자연스럽게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과 지역별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자산배분을 실시한다. 특히 글로벌 주식, 채권, 리



츠, 인프라 등에 투자해 연평균 5%가량의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며 리스크 상황에 따라서 자산 비중을 조정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실제 해당 펀드가 투자하는 피투자펀드인 글로벌 멀티에셋 인컴펀드의 과거 성과를 살펴보면 매월 안정적으로 수익을 쌓아가는 특징이 있다. 갑작스러운 이벤트가 발생했을 경우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벤트가 해소돼 시장이 정상 국면으로 돌아가면 손실을 만회하고 수익을 실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최근 실제 운용 성과를 보더라도 헤지형 기준 1개월 1.2%, 3개월 2.7%, 6개월 3.26%, 연초 후 0.89%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변동성 또한 채권혼합형 펀드 수준인 연 3% 수준으로 나오고 있어 중 위험 중수익을 추구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으로 분석된다.

고배당주·우량 회사채 투자 꾸준한 수익 창출

한국투자증권

한국밸류글로벌리서치배당인컴(주식)

저금리, 저성장이 고착화되면서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전 세계적으로 경기 위축 우려가 커지면서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예금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꾸준히 누리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이러한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상품으로 인컴펀드를 꼽을 수 있다. 인컴펀드란 가격 변동성이 작으면서도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이 꾸준히 발생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다. 주로 배당주와 같은 주식이나 회사채 등 채권을 담는다.

한국투자증권은 변동성이 낮고 안정적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한국밸류 글로벌리서치 배당인컴펀드(주식)를 추천한다. 한국밸류 글로벌리서치 배당인컴펀드(주식)는 고배당자산과 우량 배당성장주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펀드의 운용 전략은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신흥국채펀 등 변동성이 낮은 고배당자산을 담아 기본 수익을 확보하고 우량 배당성장주에 투자해 금리 수준 이상의 꾸준한 인컴을 창출하는 것이다.



투자자산 선별을 위한 세심한 분석 과정도 눈여겨볼 만하다. 개별 자산에 대한 버텀업(bottom-up) 분석과 국가·통화별 자산배분에 대한 톱다운(top-down) 분석을 병행한다. 개별 종목의 퀄리티, 지속성, 성장가능성,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벤치마크와 주요 경제지표를 베이스로 국가별·통화별 최적 자산 배분 비중을 산출한다.

펀드 운용은 한국투자밸류운용이 맡고 있다. 4·5년 전부터 투자대상 국가 확대를 위해 준비해온 한투밸류운용은 사모 헤지펀드를 통해 해외자산 투자 경험을 쌓아 왔다. 특히 좋은 기업을 싸게 사서 장기 보유하는 가치투자 전문 운용사로 정평이 나 있는 한투밸류운용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산업과 기업, 자산에 대한 뛰어난 분석과 가치평가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이 펀드는 해외주식형 펀드이므로 연금자산을 투자할 경우 세제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이다.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달리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가 발생하는데, 연금 클래스로 투자하면 과세가 이연돼 연금 수령 시점에 저율 과세가 되므로 세액공제 혜택을 위해 펀드 투자를 고민 중인 투자자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글로벌 주식 ETF·美 채권 ETF에 분산투자

하나금융투자

하나 THE ONE 타겟리턴랩

하나금융투자는 글로벌 주식 ETF와 미국채권 ETF에 분산 투자해 글로벌 자산배분을 추구하는 하나 THE ONE 타겟리턴랩을 강력 추천했다.

하나 THE ONE 타겟리턴랩은 미국 등 글로벌 주요 거래소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ETF)와 환매조건부채권(RP) 및 현금성 자산에 주로 투자한다. 매크로 지표를 기반으로 자산배분 모델링과 모멘텀 전략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본 상품은 고객과 협의해 시장 상황에 따른 적정 목표 전환 수익률을 정하고, 3년 만기로 운용된다. 가입 일로부터 6개월 내 목표 전환 수익률의 50%에 도달하면 운용 자산을 현금으로 조기 상환한다. 조기 상환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면 만기까지 지정한 전환 수익률을 충족해야 현금으로 전환한다.

조기 전환은 단순 수익률로 평가하고, 이후 만기까지 연환산 수익률로 전환을 결정한다. 또 기간에 상관없이 10%의 손실이 나면 현금성 자산으로 모두 전환해 손실 폭을 제한한다.

2000만 원 이상 가입이 가능하며, 추가 최소 입금액은 2000만 원 이상이다. 최저 가입 금액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일부 출금이 가능하다. 가입 시 원화 또는 투자 대상국의 통화로 납입해야 하



며, 가입금액의 1.2%가 선취 수수료 부과된다.

목표 전환 수익률을 넘어 운용이 종료되거나 만기가 되면 운용이 종료된다. 고객이 원하면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며, 중도해지 시에는 해지 수수료가 발생된다. 중도해지하면 선취로 낸 수수료가 가운데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에 중도해지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반환받는다. 세금은 해외주식 매매 및 배당에 따른 과세 체계를 따른다. 별도의 환해지를 하지 않아 환에 노출되는 만큼 환율을 고려해야 한다.

권장진 하나금융투자 랩운용실장은 "변동성 높은 시장 상황에서 목표한 수익률에 도달하면 바로 현금화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투자를 선호하는 고객들의 니즈가 높아졌다"며 "새로 선보이는 하나 THE ONE 타겟리턴랩은 글로벌 자산에 투자하면서 동시에 고객들의 요구에 부응할 최적의 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당성장주·고배당주 투자로 '안정적 수익'

삼성증권

삼성배당주장기펀드

삼성증권은 올해 변동성 장세에 적합한 투자처로 '삼성배당주장기펀드'를 꼽았다. '삼성배당주장기펀드'는 배당성장주와 고배당주에 투자해 자본이익과 배당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상품이다.

배당성장주는 기업 이익과 배당 이익이 함께 성장하거나 현금흐름 또는 지배구조 개선이 배당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을 말한다.

고배당주는 기업가치는 크게 상승하지 않지만 현금흐름이 안정적이고 배당수익률이 높은 주식이다. 이 펀드는 배당성장주에 투자해 적극적으로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한편 고배당주로 주가 하락기에도 안정적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본적으로 독점적 사업력, 창조적 기업가정신, 구조적 성장 등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기업에 대한 분석을 거쳐, 합리적 주가의 성장주를 찾아내는 기업분석을 거치는 것도 특징이다.

포트폴리오는 배당성장주 60~70%, 고배당주 20~30%, 배당잠재력이 있는 주식 10~20%로 구성된다. 잠재적 배당성장주는 현금 창출력이 높고 풍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낮은 배당성향을 가진 기업으로 선제적으로 선별해 투자한다.

한국 기업의 이익 성장세가 다른 시장 대비 주목받던



구간은 지났다. 그러나 한국 기업의 배당성향은 선진국뿐 아니라 주변국과 비교해도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향상될 여지가 높다고 평가받는다. 최근에는 배당에 대한 기업과 투자자의 인식 변화로 배당수익률이 국고채 금리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 배당성향 정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배당주가 저금리 시대 안정적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14년 스튜어디십 코드 도입 이후 배당성향이 2013년 26%에서 2016년 34%까지 상승했다. 지주회사로 개편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며 배당성향이 향상될 가능성도 있고, 배당 서프라이즈는 또다시 강력한 주가 상승을 이끌어낸 경우도 많다.

저금리 기조도 배당 투자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고 있다. 시중 금리가 낮은 환경에서는 은행 금리 이상의 배당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 배당투자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AI가 금융공학적인 분석·투자... 운용보수 '0'

대신증권

대신 로보어드바이저

최근 미국의 이란 군부 실세 제거로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경계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또 미·중 무역분쟁이 1단계 합의에 도달했지만, 부분적 합의라 2·3차 협상의 난항이 예상된다.

대신증권은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는 불안 요인에 안정적 투자처를 찾기가 쉽지 않은 고객들을 위해 '로보어드바이저' 상품 가입을 제안하고 있다.

대신증권이 로보어드바이저 상품은 국내외 ETF에 자산 배분 전략을 활용해 변동성을 낮추고 안정적 수익을 추구한다. 일반적인 펀드들과 비교 시 판매 및 운용에 드는 비용을 대폭 낮춰 장기간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상품이다. 특히 운용보수가 제로다.

대신 로보어드바이저는 투자 대상을 머신러닝 기법과 블랙-리터만 모형을 통해 찾는다.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100%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데, 대신금융그룹의 금융공학파트가 개발했다. 금융위원회와 코스콤이 주관한 테스트 베드를 최종 통과했고, 수익률 부분에서도 평균을 웃돌았으며 위험에 대한 초과 수익 정도는 업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가장 차별화된 특징은 더욱 확정적인 미래 수익을 담보하는 점이다. 즉, 판매와 운용에서 가장 낮은 비



율을 받는다는 것이다. 고객들의 비용을 수익으로 환원시키기 때문에 더 확정적 미래 수익으로 볼 수 있다.

'비용의 복리' 효과를 고려할 때, 투자자들이 내야 하는 비용은 장기 투자일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 비용을 줄이면 투자자들이 받는 수익은 커진다. 예로 연 2%를 수수료로 지급해야 하는 주식형 펀드에 매월 100만 원씩 30년간 투자했을 경우 연평균 6% 수익률을 기록했다면, 나중에 받게 되는 총자산 10억 원 중 3억 원을 떼고 받게 된다. 총비용이 30%에 달한다.

최광철 대신증권 상품기획부장은 "최근 국내외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으로 사람들의 돈이 몰리고 있다"며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금융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운용과정의 투명성도 높은 '로보어드바이저'가 목돈 마련의 새로운 투자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망 중국본토주식 엄선 '수익률 80.4%'

<지난 1년>

하이투자증권

KB중국본토A주 펀드

하이투자증권은 지난해 격화된 미·중 무역전쟁이 15일에 1단계 무역 합의가 이뤄지면서 향후 수혜가 예상되는 'KB 중국본토A주 펀드'를 추천했다.

이 펀드는 상하이와 선전에 상장된 중국본토A주(상장 예정 공모주 포함)에 주로 투자하며 복수의 현지 운용사와 협업하는 멀티매니저 펀드로 운용하는 특징이 있다. 이에 중국 현지 상황을 파악하면서 투자한다는 장점이 있다. 2011년 3월 설정해 약 4800억 원 규모로 운용되는 펀드로 지난 1년 수익률 28.0%, 설정 후 수익률 80.4%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이투자증권이 올해도 중국시장에 주목하는 이유는 지난 해 선진국 중심이던 시장 패권이 변화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머징 국가에 투자 기회가 있으며, 그중에서도 미·중 무역전쟁으로 쉽지 않은 2019년을 보낸 중국에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미·중 무역전쟁 봉합을 위해 중국은 금융시장을 해외투자자에게 추가 개방해야 한다. 이미 지난해 MSCI 이머징 지수 내 중국 본토 비중 확대라는 조치가 이뤄졌다. 게다가 중국 정부는 1경 원대에 이르는 막대한 가계예금 중 일부를 증시로 유입시켜 증시를 부양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세부 방안을 마련할 것



이라고 7일 발표하 바 있다.

하이투자증권이 추천하는 'KB 중국본토A주 펀드(주식)'는 위험등급 2등급으로 적극투자 성향 이상 투자자에게 적합한 해외주식형 펀드다. 또 중국본토 A 중에서도 상하이 시장은 금융주, 필수 소비재 등 가치주 비중이 높으며 선전 시장은 IT 같은 성장주 비중이 높다. 따라서 중국본토A주식에 투자하더라도 상하이 또는 선전 시장 비중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 펀드는 2019년 9월 기준으로 상하이 비중이 64%, 선전 비중은 29% 수준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1단계 합의로 공식 휴전에 들어갔지만 종전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가치주와 성장주로 분산해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펀드가 이에 적절히 투자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참고로 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헤지를 원칙으로 한다.

One Shinhan
고객을 위한 하나의 신한

Shinhan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신한카드의 3 초



초연결

초협력

초확장



예상치 못한 연결로 뜻밖의 감동을 드립니다

우리의 데이터로 누군가의 성공을 도와드립니다

그동안 카드가 하지 못한 일로 새로운 경험을 드립니다

신한 PayFAN

MySHOP # Partner

My 송금

이런 세상을 당신이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도록
신한카드, 초월하는 가치를 만들다

초연결

상품 서비스와 마케팅을 연결, 고객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합니다

초협력

고객,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가치를 실현해나갑니다

초확장

업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차원의 미래 금융을 선도합니다

※준법감시 심의필 제 20191223-Exn-001호(2019.12.23)

“성 다양성은 기업 이사회 의 경쟁력”

이복실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회장

‘女이사 의무화’ 자본시장법 개정 앞장...최근 국회 통과 “양성평등 아닌 다양성 갖춘 지배구조 논의에 초점 맞춰”

“다양성이 기업에 뿌리내리는 자본시장을 기대한다. 법안 정적을 위해 시민사회의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2016년 출범부터 꾸준히 여성 이사의 필요성을 말한 결과, 9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는 여성 이사를 최소한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이복실(사진)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회장은 “양성평등이 아닌 기업 가치를 높이는 목적으로 법안 정신이 사회에 확산되길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2002년 미국에서 설립된 세계여성이사협회는 전 세계 80여 개국이 가입한 글로벌 NGO(비영리 기구)다. 한국은 30여 명의 여성 이사들이 모여 2016년 74번째로 가입했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토대로 매년 국제 포럼과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현장에서 이사회 다양성을 갖춘 글로벌 기업의 선진 사례를 공유하는 등 공론장 마련에도 힘쓴다.

여성가족부 차관 출신인 이복실 회장은 “이사회 다양성이 실질적으로 기업 가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논의하고 사회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구

조 개선과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이번 법안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협회는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배구조 전문가인 최은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한국 여성 이사의 현실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2019년 글로벌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는 한국 기업의 이사회 내 여성임원 비율은 3.1%로 조사대상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상징성보다는 실효성 있는 법이 필요하다”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 기본법 등 반영할 수 있는 법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이 취지를 공감하고 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자본시장법’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은 양성평등이 아닌 다양성을 갖춘 지배구조 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최은열 의원은 협회의 문제의식에 공감해 법안 마련에 나섰고, 다른 의원들을 만나 설득하는 등 사회의 노력도 이어졌다.

우여곡절 끝에 법안은 통과됐지만 여전히 반발 목소리가 작지 않다. 산업별 특성과 기업의 자율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등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회장은 “여성 이사 확대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로 이



어진다”며 “개정안이 정착되고 앞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준다면 규제와 부담이 아닌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선순환의 법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울러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는 투자 판단 기준으로 이사회 의 독립성과 투명성과 함께 ‘다양성’을 꼽는다. 그중 여성 대표성 항목을 고려해 투자를 판단한다”며 “성 다양성은 이사회 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 통과를 시작으로 시민사회의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주중 시간에 모니터링을 할 뿐만 아니라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공론장도 꾸준히 마련할 예정이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사진 고이관 기자 photoeran@

빈 살만이 베이조스 스마트폰 해킹했다?

불륜 보도 후 디지털 포렌식 조사 사우디 왕세자가 보낸 메시지에 악성파일 포함 사생활 정보 털려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왼쪽 사진)의 스마트폰이 해킹을 당했다. 해킹 용의자로 무함마드 빈 살만(오른쪽)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지목되면서 미국이 발각 뒤집혔다.

2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은 소식통을 인용해 2018년 베이조스가 빈 살만 왕세자로부터 모바일 채팅 앱인 ‘왓츠앱’ 메시지를 받은 뒤 스마트폰이 해킹됐다고 보도했다. 그해 3월 베이조스는 사우디를 방문해 빈 살만 왕세자와 만났다. 5월 1일에는 빈 살만 왕세자의 계정으로부터 왓츠앱 메시지를 받았다.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빈 살만 왕세자가 보낸 메시지에 악성 파일이 포함돼 있었고 이를 열자 베이조스의 스마트폰에 저장돼 있던 정보들이 몇

시간 만에 털렸다. 그의 사생활이 담긴 문자를 포함해 방대한 양의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3월 미국 내셔널 인콰이어러가 베이조스의 불륜을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내셔널 인콰이어러는 미국의 전 방송기자이자 앵커 출신인 로렌 산체스와 베이조스의 불륜 설을 보도했다. 그러면서 베이조스의 문자 내용을 제시했다. 내셔널 인콰이어러는 “베이조스 여자친구의 오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베이조스는 해킹 등 개인정보 유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자체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팀은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고, 빈 살만 왕세자로부터 온 메시지로 인해 해킹이 시작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김서영 기자 0jung2@

‘삼성드림클래스 겨울캠프’ 중학생 1600명 수료식

삼성전자는 22일 전국 5개 대학에서 수료식을 갖고 3주간 진행된 ‘2020 삼성드림클래스 겨울캠프’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시작한 ‘삼성드림클래스’는 교육 여건이 부족한 지역의 중학생에게 대학생이 멘토가 돼 학습을 지원하는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교육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이번 수료식에는 캠프를 마친 전국 읍·면·도시지역 중학생 1600명, 학부모, 대학생 멘토 540명 등도 참석했다.

캠프에 참가한 중학생들은 3주간 각 대

학 캠퍼스에서 대학생 멘토들과 합숙하며 영어와 수학을 집중 학습해 자신감을 키웠다. 특히, 지난 여름캠프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 주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발견하고 코딩으로 해결법을 찾아보는 등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도시에 비해 문화 체험과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접할 기회가 적었던 중학생들은 음악회를 관람하고 대학 전공 박람회에 참가해 각자의 꿈과 재능을 찾는 기회도 가졌다. 권태성 기자 tskwon@

다보스에 보낸 교황의 메시지 “사람을 정부 정책 중심에 두어야”

프란치스코 교황(사진)이 21일(현지시간)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다보스포럼)에 참석한 정부와 기업 지도자들을 향해 사람을 정책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황은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막한 다보스포럼에 보내는 메시지에서 “잊지 말아야 할 최우선 고려사항은 우리가 모두 인류의 한 구성원이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교황은 “서로서로 보듬는 도덕적 의무는 권력과 이익을 쫓는 게 아닌, 인간을 공공 정책의 중심에 놓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이는 기업은 물론 정부에게도 똑같이 유효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류가 직면한 여러 위협 요인의 해결책을 찾고 미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도 근시안적인 기술·경제적 접근보다는 이러한 윤리적 측면을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영 기자 lry0403@

GS리테일 북드림 캠페인 최다 기부자는 GS25 점주

광주 박명석 씨 2만6910권

GS리테일의 임직원과 가맹점, 고객들이 북드림캠페인을 통해 9년간 총 11만 7800여 권의 책을 기부했다. 그중에서 역대 최다 기부자는 GS25 경영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GS리테일은 21일 사회공헌 단체인 팅스기브를 방문해 지난해 모은 도서 1만 9706권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GS리테일은 책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꿈을



전달하자는 취지의 ‘북드림(Book Dream) 캠페인’을 통해 2011년부터 2019년 말까지 총 11만 7840권의 책을 기부했다.

광주 서구에서 GS25점대중센터점을 운영하는 박명석(사진) 경영주는 2015년 550권을 시작으로 최근 5년 동안 총 2만 6910권에 달하는 책을 기부해 최다기부자로 선정됐다. 박미선 기자 only@

개성공단 기업인들, 설 사랑나눔

경기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이 설을 맞아 ‘개성공단 기업인 취약계층 지원 물품 전달식’을 21일 오후 경기도청 평화부지사실에서 열었다. (사진)

이날 전달된 기부물품은 총 4000여만 원 상당의 의류, 신발, 식품, 생활용품 등 개성공단 기업 12개사가 제작한 제품들이다. 개성공단기업인들이 2016년 2월 개성



공단 전면 중단 이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도 발 벗고 나서서 기탁해 준 물품들이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인사

◆금융위원회 ◇국장급 전보 △기획조정관 박광 △금융정책국 구조개선정책관 최유삼

◆삼성생명 ◇부사장 승진 △박종문 ◇전무 승진 △김원희 이경복 이성열 ◇상무 승진 △김상필 이상희 이성현 이팔훈 이호선 최창희 한원기

◆삼성화재 ◇전무 승진 △김규형 김인 이호현 정현 ◇상무 승진 △곽승현 구영민 김철영 양권진 원동주 이상동 최부규

◆삼성카드 ◇부사장 승진 △박경국 ◇전무 승진 △김상우 최정훈 ◇상무 승진 △윤한주 조은경 황성원

◆삼성증권 ◇부사장 승진 △리테일부문장 사재훈 ◇전무 승진 △SNI본부장 박경희 ◇상무 승진 △전략기획담당 김범구 △강서지역본부장 김홍노 △기업금융2본부장 이상현 △법무팀장 황은아

◆삼성자산운용 ◇상무 승진 △유영재 채권운용본부장 △박민재 경영지원팀장

◆삼성서울병원 △전무 이형배

◆한라그룹 ◇대표이사 선임 △만도브 로제 이정석 △한라GLS강락원 ◇부사장 승진 △만도 박도순 ◇전무 승진 △그룹비서실 한청규 △만도 이정석 유호영 이기관 ◇상무 승진 △만도 김구현 김문성 김윤기 김재혁 유기현 이철 흥대건 ◇상무보 선임 임원 승진 △한라홀딩스 조성진 권세용 승

기탁 △만도 김기영 김경래 노종극 박대성 유영선 이운행 정동조 정성희 조장연 최용준 최한규 △한라 광영국 김세배 박병선 박성일 인래진

◆금성백조 ◇부사장 승진 △금성백조주택 경영지원본부 김영환 △금성백조건설 정화영 ◇상무 승진 △금성백조주택 개발사업본부 윤홍수 △건설사업본부 송태호 △정비사업팀 김재일 △설계실 문영기 라운

◆조선비즈 △마케팅사업본부장 김규승 △재휴사업팀장 홍원준 △재무회계팀장 김명희 △뉴비즈사업부장 김창 △디지털 마케팅팀장 안동민 △기업영업팀장 이보라 △인사총무팀장 이미희 △영업기획 담당 변민성

부음

▲박철규(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씨 별세, 서정희 씨 남편상, 박종림(바노바기성형외과 원장)·종주(하트성형외과 원장) 씨 부친상, 조혜원 씨 시부상 = 21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4일 오전 4시 30분, 02-2072-2020

▲김홍주 씨 별세, 박옥강 씨 남편상, 김용균(SK네트웍스서비스 전무)·용국(NICE정보통신 대표)·경미 씨 부친상, 이선미·곽윤경 씨 시부상 = 22일, 경남 창원 삼성창원병원 장례식장 VIP 1호실, 발인 24일, 055-233-8441

▲송정례 씨 별세, 이철식(한국지엠 창

원관리 담당 이사) 씨 모친상 = 22일, 경남 진주시 경상대병원 장례식장 101호실, 발인 24일 오전 8시, 055-750-8448

▲배상철 씨 별세, 배인권·현기(웰스가이드 대표·전하나은행 전무)·요한(기아타이거즈 트레이닝 코치) 씨 부친상, 양경미 씨 시부상, 김용명(두산건설 부장) 씨 장인상 = 22일, 동탄성심병원 장례식장, 발인 24일 오전 8시 30분, 031-8003-4410

▲김선미(창무예술원 예술감독·한국예술종합학교 겸임교수) 씨 별세, 조정제(㈜DI 사외이사) 씨 부인상, 조혜인(연세대 시스템생물학과 박사과정) 씨 모친상 = 21일,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24일 오전, 02-2227-7556

기고



김상경 한국국제금융연수원 원장 (사)여성금융인네트워크 회장

여성이 임원 되기 가장 힘든 나라 대한민국

대부분의 금융권 여성은 개인 영업 업무를 담당하여 회사의 주요 경영정책이나 전략에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부서에 자리하고 있다. 만년 과장으로 퇴직해야 하는 2차 정규직 대부분도 여성으로 채워져, 금융권은 성 평등 결여로 인해 여성이 임원으로 승진하기 가장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다.

새해 초부터 좋은 소식이 날아왔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전 세계 주요국 가운데 여성이 임원 되기 가장 어려운 나라였다. 그런데 이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년 이내에 최소 1인 이상의 여성 이사를 포함시키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애초에 이 법안은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의 법인 이사회는 '특정 성이 2/3를 넘을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우여곡절 끝에 '여성 등기이사 최소 1인 이상을 의무사항'으로 한 '여성 임원 할당제'가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다. 애초의 법안으로 통과되진 않았지만,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에게 도전과 희망을 준다는 의미에서 매우 환영할 만하다. 최소한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을 움직이는 자산 2조 원 이상의 대기업들도 따라야 하므로 더욱 효과적인 법이다. 이제 금융권 유리전장에도 큰 구멍이 날 계기가 마련되었으니 기쁘기 한이 없지만, 정부가 시행령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할지가 궁금하다. '여성 임원 할당제'란 기업 내 고위직에 여성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일정 비율

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정부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등의 제도를 말한다. 민간기업에 '여성 할당제'를 가장 먼저 법제화한 것으로 유명한 나라는 노르웨이이다. 노르웨이는 2003년 '유한책임 회사법'을 개정해 '여성 임원 할당제'를 도입하였다. 처음에는 국영기업이 대상이었으나 3년 후 민간기업까지 할당비율을 맞추게 했다. 할당비율을 맞추지 못하는 기업은 경고나 벌금에 이어 최종적으로 해산 또는 상장폐지가 가능한 초강력의 시행령을 도입하였다. 노르웨이를 시작으로 유럽 전역은 물론 아프리카의 르완다, 아시아의 말레이시아, 인도 등으로 '여성 임원 할당제'가 확산하였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도 상장회사가 '여성 임원 할당제'를 실시하지 않으면 벌금 및 처벌을 받는 규정까지 내놓았다. 이에 더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유럽 연합(EU)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금융감독그룹은 은행과 같이 신용을 창출하는 기업의 경영이사회가 충분한 성 다양성을 갖추지 못하면 '집단행동 위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 다양성 구성이 매우 중요한 '감독 이슈'라고 지적했다. 상위

직급의 여성 희소성은 다양한 의견의 결여로 이어져 조직 전반에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은행권의 몰락은 각국의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고, 다른 업종의 몰락에 비해 훨씬 느린 회복 속도를 보여 주고 있다. 왜 우리나라 금융권은 유독 여성 임원의 빈곤 현상이 심할까? 1980년대 은행의 공개채용 대상은 대졸 혹은 졸업예정인 군필 혹은 면제의 남성으로 특정되었다. 여성은 고졸 중심의 공개채용이었고, 대졸 여성은 매우 제한적으로 채용되었다. 군필 남성에게는 가산점(총점의 5%)까지 주어져 금융권의 취업 장벽은 여성에게 훨씬 높았다. 이 제도는 2001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지만, 오늘날 금융권 상위층에 여성 임원이 적은 주요 원인이 되었다. 게다가 대부분의 금융권 여성은 개인 영업 업무를 담당하여 회사의 주요 경영정책이나 전략에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부서에 자리하고 있다. 만년 과장으로 퇴직해야 하는 2차 정규직 대부분도 여성으로 채워져, 금융권은 성 평등 결여로 인해 여성이 임원으로 승진하기 가장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증권이나 보험 쪽은 은행보다 더욱 열악하다. 여성 고위직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직원이 많은 제1금융권에 맞춰져 있어, 은행은 그래도 여성 임원 배출이 나은 편이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통과가 남성 중심 문화가 굳어진 우리 금융계에서는 남성들에게 부정적이거나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조직 상층부의 성 평등은 금융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시대적 요구이다. 우리나라는 여학생의 대학진학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고, 그중 매우 우수한 여성들이 금융권에 진입하고 있다. 2017년 '여성금융인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한 라가르드 당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기조연설에서 "한국 여성들은 국내의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었으나 수많은 장애물과 편견에 가로막혀 제 능력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여성을 키워야 조직이 크다'는 패러다임은 이제 전 세계, 전 산업에서 확산하고 있다. 남성, 여성 모두가 화합하여 평등의식을 갖고 함께 갈 때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과 신뢰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CEO 칼럼



서용식 수목건축 대표

리츠 펀드를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20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신년 기자회견담화를 통해 부동산 가격 상승과 투기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 임기 중 전체 주거의 10%인 40만 호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도시형 생활주택사업부터 자율주택정비사업까지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용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은 물론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려가겠다는 정책을 일관되게 펼쳐왔다. 서울시는 민간 부동산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임대주택 공급사업으로 작은 부지의 도시형 생활주택 개발부터 보다 넓은 부지의 역세권 청년주택사업까지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사회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저렴하고 살기 좋은 임대주택 공급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뿐만 아니라 도시에 거주하는 다양한 연령의

1인 가구에 중요한 정책이다.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부동산 개발은 투입 비용의 규모가 큰 사업인 만큼 개인의 자산으로 부지를 개발하고 임대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개발사업 전반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리스크와 초기 투자 비용 등 자금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추진이 더디고 어려울 수 있다. 변수가 많은 부동산 개발 사업의 리스크를 줄이고 금융, 건축, 건설, 운영관리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통합적인 사업관리를 통한 운영이 필요하다. 민간개발을 유도하는 임대주택 공급사업도 일반 부동산 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성 검토, 인허가, 설계, 시공, 금융 조달, 세무, 임차인 구성 등 사업 전 단계가 동일하며, 서울시의 정책사업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의를 거쳐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리츠 펀드는 주거 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 임대주택 공급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금융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초기 자금이 없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는 데 한계가 있는 사업 부지 토지주의 요구에 맞는 펀드 매칭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부동산 개발, 임대, 주택 저당 채권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리는 부동산 간접투자 기구인 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는 소액주주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자본 및 지분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회사나 투자신탁을 말한다. 토지주와 함께하는 지주공동사업에 대한 상품으로, 현금 확보가 필요한 토지주에게 일정 부분 초기에 현금을 제공해주고 토지주는 리츠에 현물을 출자해 배당을 받는 형식으로 운영되는데, 이를 통해 초기 착수자금이 부족한 땅의 개발사업에 힘이 되어준다. 건설사들이 리츠 사업에 진출하여 건설과 금융을 융합한 신규 사업모델을 만드는 등 건설사의 자본이 다시 부동산 개발에

투입돼 수익을 내는 사모형 리츠는 특정 기관만 참여할 수 있어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가 공모형 리츠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일반 투자자들도 상장된 리츠회사의 주식을 매매함으로써 손쉽게 리츠에 투자할 수 있게 돼 공모형 리츠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장 변화에 발맞춰 건설사와 금융사가 함께 참여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자금 조달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리츠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 운영을 위해 필자가 운영하는 회사도 자산 운용사와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을 대상으로 한 리츠 펀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청년주택으로 시작하여 앞으로 임대주택 관련 전문 리츠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서울 역세권에 땅을 갖고 있는 토지주에게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더 나은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에드바르트 몽크 명인 "자연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뿐 아니라, 영혼의 내면도 포함한다." 노르웨이 화가, 판화가. 노르웨이에서 위인 대접을 받는 인물로, 그의 초상이 1000크로네 지폐에 들어가 있다. 대표작 '절규'는 오슬로의 몽크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오늘은 그가 세상을 떠난 날. 1863~1944. ☆ 고사성어 / 자강불식(自強不息) '스스로 힘쓰고 쉬지 않는다'는 뜻. 자신의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역경(易經) 건괘(乾卦)·상전(象傳)에 나온다. "하늘의 운행이 굳세니, 군자가 이것을 응용하여 스스로 힘쓰고 쉬지 않는다[天行健, 君子以自強不息]."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해가 지면 달이 뜨는 것처럼 천체우주의 운행과 대자연의 순환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함없이 굳건하니 스스로를 단련하여 어떤 시련이나 위기가 닥쳐도 굴복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굳은 의지를 비유한다.

'저금리의 뒷'에 대한 경고가 이어진다. 얼마 전 세계은행(WB)은 "과거 역사를 보면 저금리는 결국 금융위기라는 불행한 결말로 끝이 났다"며 경종을 울렸다. 세계 경제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전 세계 중앙은행이 앞다퉈 기준금리를 내린 결과, 제로 금리를 넘어 마이너스 금리가 넘쳐나서다. 잇단 저금리의 역풍 경고에도 중앙은행들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과거 전철을 밟을까 두려워서다. 1987년 2월 '루브르 합의' 이후 적극적인 내수 부양에 나선 일본은 심각한 버블 경제에 직면한다. 물가까지 오르자 장고 끝에 금리 인상 칼을 빼들었는데 이게 악수가 됐다. 자산 가치 폭락과 함께 디플레이션 수렁에 빠져 30년이 넘도록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

는 단초를 제공했다. 2018년만 해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갔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그해 말 주식시장이 요동치자 긴축 계획을 철회하고, 2019년에 세 번 연속 금리 인하에 나선 배경이기도 하다. 양적 완화를 통해 아무리 시장에 돈을 쏟아부어도 '저물

가의 골'에 갇혀 있는 경제도 중앙은행들의 소심함에 명분을 제공해 줬다. 그 사이 엄청난 빛이 자랐다. 전 세계 총부채 규모가 250조 달러를 넘어서며 지구촌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빚더미에 올라섰다. 특히 신흥국 부채가 급증했다. 신흥국의 부채는 71조 달러를 넘어섰고 국

내총생산(GDP) 대비 220%로 위험 수위를 넘나든다. 문제는 이 상황이 영원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변화무쌍한 세계 경제에서 미국이 다시 슬금슬금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불행의 파고가 덮쳐온다. 빛이 늘어나는 데다 달러 유출에 따른 통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수입 물가 급등, 내수 위축 등 악순환에 빠져들게 돼 있다. 그리고 가장 취약한 신흥국부터 무너질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야 화폐 찍어내고 환율전쟁을 벌여 어떻게든 살아남겠지만, 이렇다 할 수단이 없는 신흥국들은 죽어 나가는 수밖에 없다. 저금리의 독배를 마신 세계 경제에 시한 폭탄이 돌기 시작했다.

☆ 시사상식 / 체크슈머 '체크(Check)'와 '컨슈머(Consumer)'의 합성어.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제품 성분이나 제조 과정 등 제품 정보는 물론 고객후기까지 꼼꼼히 따진 뒤에야 구매를 결정하는 소비자를 말한다. ☆ 고운 우리말 / 찬찬하다 성절이나 쏘씨, 행동 따위가 꼼꼼하고 차분하다. ☆ 유머 / 술이 웬수 술 취한 남편이 배란다로 나갔는데 들어오지 않아 아내가 나가 보니 배란다에서 소변을 보고 있었다. 10분이 지나도 그 자세로 계속 서 있자 아내가 "뒹하고 있는 거예요?"라고 물었다. 남편이 "오줌이 멈추지 않아"라고 하자 아내가 소리를 질렀다. "그건 빗물 내려가는 소리예요!"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자수첩



김서영 국제경제부/0jung2@

'저금리' 독배 마신 세계 경제

는 단초를 제공했다. 2018년만 해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갔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그해 말 주식시장이 요동치자 긴축 계획을 철회하고, 2019년에 세 번 연속 금리 인하에 나선 배경이기도 하다. 양적 완화를 통해 아무리 시장에 돈을 쏟아부어도 '저물

가의 골'에 갇혀 있는 경제도 중앙은행들의 소심함에 명분을 제공해 줬다. 그 사이 엄청난 빛이 자랐다. 전 세계 총부채 규모가 250조 달러를 넘어서며 지구촌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빚더미에 올라섰다. 특히 신흥국 부채가 급증했다. 신흥국의 부채는 71조 달러를 넘어섰고 국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열전 국회도서관 조사관

전국시대 최고의 경제가, 관중(管仲)

행정·재정 바로세워 패자의 자리에 오르다

〈霸者〉

관중(管仲)은 BC 723년 지금의 안휘 성에서 태어났다. 본명은 관이오(管夷吾)이며, 중(仲)은 자(字)이다. 그의 조상은 본래 희씨(姬氏) 성으로 주(周)나라 왕실과 동종(同宗)이었다. 그의 부친은 대부 벼슬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크게 몰락하여 관중은 매우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내야 했다.

처리해 나갔다.

구체적 실적에 따라 관리 임명

관중은 환공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무엇보다 인재 등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하여 관중은 재주 있는 사람이면 언제든지 궁궐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밤마다 궁궐 뜰 앞에 모닥불을 피워 밝혀 놓았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한 명도 찾아오지 않았다. 그렇게 인재가 없을까 하고 환공이 혀를 차고 있을 무렵, 어느 시골에서 온 사람이 드디어 면회를 신청하였다.

환공이 반갑게 맞으며 물었다. "그래, 그대의 재주는 무엇이었어?"

그러자 시골 사람이 대답했다. "저의 재주는 구구단이었습니다."

"아니, 그것도 재주라 할 수 있겠소?" 이에 그 시골 사람이 정색하며 말하였다.

중 9부(輕重九府)를 설치하여 풍년과 흉년에 따라 백성들이 필요한 식량과 물품을 조정하였다. 또 주화를 만들고 어업과 염업을 발전시켰으며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장려하여, 이로부터 제나라 경제는 크게 번영하였다. 그는 호족들이 함부로 백성들의 토지를 빼앗는 것을 엄금하였다.

소금·철 국가전매 '국영기업'의 발명자

특히 관중은 중국 최초로 소금과 철의 국가전매 정책을 펼쳐 상업에 크게 발전시켰고, 이러한 관중의 정책 추진에 따라 제나라는 전국시대 초기의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실로 관중은 '국영기업'의 발명자였고, 가히 중국 고대 시기 최고의 경제가라 할 것이다.

관중 본인 역시 10분의 3의 시장세(市場稅)를 점유할 수 있게 되어 비록 신하의 지위에 있었지만 오히려 열국(列國)의 어떤 제후보다 더 부유하였다. 그리하여 관중의 재산은 왕실의 그것과 비견될 만하였다. 하지만 백성들은 아무도 그를 사치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훗날 공자(孔子)는 관중이 검소하지 않았음을 비판하였다. 또 군주만이 문 앞에 담을 쌓을 수 있는데 관중이 신하로서 문 앞에 담을 쌓은 사실을 지적하며 그의 예의 없음을 비난



중국 산둥(山東)성 쑤보(濰博)시에 있는 관중기념관과 관중상(像).

친구 포숙 추천, 제나라 환공의 재상에 하지만 그는 실의에 빠지지 않고 천하를 유력(遊歷)하면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며 때를 기다렸다. 그는 죽을 뻔할 고비도 넘기면서 친구 포숙(鮑叔)의 추천에 힘입어 마침내 제(齊)나라의 재상 자리에 올랐다. 관중은 제나라 환공(桓公)을 보좌하여 제나라가 전국시대(戰國時代) 최초로 패자(霸者)의 자리에 오르도록 한 일등공신이었다.

관중이 제나라 재상의 자리에 올라 정사를 맡은 이후, 바닷가의 작은 나라였던 제나라는 상업이 발전하고 재물이 모여져 국가는 부유하게 되었으며 군사력은 강대해졌다. 그는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항상 백성들과 고락을 함께하였다.

그는 전국적으로 행정제도를 정돈해 사농공상이 각기 그 직업에 본분을 다하도록 하였고, 백성들이 이리저리 유랑하지 않고 한 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행정 개혁은 사회의 안정에 그 목적이 있었다. 또한 삼림을 남벌하고 호수를 마르게 하여 고기를 잡는 등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위해 임업과 어업 자원을 마구잡이로 훼손하는 당시의 풍습을 금지하고 벌목과 고기잡이를 적절한 계절과 시기에만 허용하도록 하였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자연환경보호법'이었다.

국가 정책은 반드시 민심에 순응해야

관중의 정책은 이렇듯 평범하고 쉬웠으므로 시행에도 어려움이 없었다. 백성들이 원하면 곧 그것들을 들어주었고, 백성이 반대하면 곧 그것을 포기하였다. 그는 말했다. "창고가 가득 차야 예절을 알고 의식(衣食)이 족해야 영욕을 안다. 반대로 예의엄치가 시행되지 못하면 국가는 곧 망하게 된다. 국가의 정책과 조치들이 마치 물 흐르듯 순조롭게 시행되는 것은 그것들이 민심에 순응하기 때문이다." 관중은 "주는 것이 곧 얻는 것임을 아는 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법보(法寶)이다"고 갈파하였다. 그의 정치는 전화위복에 능하여 실패를 성공으로 변화시켰으며, 물가 통제를 중시하고 신중하게 재정을

"지금 대왕께서 인재를 구하고 계시지만 1년이 되도록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대왕께서 워낙 현명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따를 수 없다고 생각해 찾아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의 구구단은 재주도 아니지만 이 정도의 재주도 대우받게 되면 재능 있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올 것입니다."

환공은 "그 말이 참으로 옳다!"라고 말하고는 그를 후하게 대접하였다. 그 후 한 달이 채 못되어 나라 안의 인재들이 궁궐로 모여들었다.

관중은 나라 안에 있는 인재들을 추천하도록 하여 그들을 과감하게 기용하였다. 그러나 관리를 임명할 때는 겉으로 드러난 형식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구체적으로 나타난 실적에 근거해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백성들의 신임을 얻은 실적이 중시되었다.

토지 등급에 따라 차등적 세금 부과

관중은 토지의 비옥도에 의거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상지이쇠징(相地而衰徵)'이라는 토지 세수정책을 만들어 토지의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였다. 이는 합리적인 조세부담 정책으로서 백성들의 협력을 이끌어 냈다. 그리고 '경

하였고, 관중의 그릇이 작다며 탄식하였다. 그러나 공자는 그와 동시에 제나라 환공을 천하의 패자로 만든 것은 오로지 관중의 힘이었다고 말하면서 "만약 관중이 없었다면 나 자신도 아만인의 신세를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이다"라며 공헌을 높이 평가하였다.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諸葛孔明)도 언제나 자신이 관중과 같은 인물이 되고자 노력하였다.

"곡식 창고가 충실해야 예절을 안다"

한편 사마전은 공자가 관중을 과소평가하는 점에 대해 "옛말에 '군주를 보좌하여 그 미덕을 발양시키고 그의 과오를 바로잡음으로 상하가 곧 서로 가까워질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사람이 바로 관중이 아닌가?"라며 반론을 제기하였다. 사마전은 "언뜻이 깊어야 물고기가 생기고 산이 깊어야 짐승이 모이듯이, 사람도 부유할 때 비로소 인의가 생겨나는 것이다"고 갈파했는데, 이는 바로 "곡식 창고가 충실해야 사 람들은 비로소 영욕(榮辱)을 안다"는 관중의 관점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었다.

관중은 BC 645년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78세였다. 사후에 그는 관자(管子)라는 존칭으로 불렸다.

시설

성장률 2.0% 추락, 민간 활력 소멸의 결과

한국은행이 22일 내놓은 실질 국내총생산(GDP) 집계 속보치에서 작년 GDP 성장률이 2018년보다 2.0% 증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0.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다. 정부가 방어한 성장률이다. 당초 민간 연구기관들은 1%대 추락을 예상했다. 생산·소비·수출·투자 등이 최악이었던 까닭이다. 하지만 정부가 집중적인 재정지출로 성장을 떠받쳤다. 수출과 투자가 특히 부진했다.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이 -10.3%의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였다. GDP로 1.5% 성장이다. 설비투자는 2009년 이후 가장 큰 폭인 8.1%, 건설투자도 3.3% 줄었다. 설비와 건설투자 부진이 성장기여도를 각각 0.7%포인트(P), 0.5%P씩 잡아먹었다. 민간소비도 겨우 1.9% 성장에 그쳐 2013년(1.7%) 이후 가장 낮았다. 반면 세금을 동원한 재정지출 확대로 정부소비가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6.5% 증가했다. 작년 2.0% 성장률에서 정부 기여도가 1.5%P에 달한 반면, 민간은 겨우 0.5%P에 그쳤다. 민간 활력은 쇠퇴하고 정부가 주도한 성장이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앞장서 작년 성장률 2.0%를 지켰음에도, 정부지출이 민간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지 못한 한계가 계속 지적되는 이유다. 정부는 성장률 추락을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세계 교역 위축, 기업 투자심리 감소, 주력산업인 반도체 업황 약화의 탓으로 돌린다. 외부 변수의 영향이라는 주장인데, 우리 경제의 구조적 결함에 대한 진단과 대처가 결여돼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작년 성장률 2.0%에 대해, 심리적 마지노선을 지킨 '차선의 선방'이라며 오히려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여전히 비판적이다. 한국 경제 저성장이 고착화되는데도, 이를 돌파할 경제정책의 대전환과 경기반등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깊다. 당장 정부는 작년 최악의 수출 감소 추세가 올해 반전할 것이라고 자신하지만, 거시효과를 감안해도 연초부터 수출 상황이 좋지 않다. 미·중 무역분쟁의 봉합이 우리 수출에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불확실성만 기울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여기에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미 국정의 공백이 나타나고 있고, 온통 집값 끌어내리기에만 매몰돼 남발되고 있는 무리한 반(反)시장 정책들이 경제를 왜곡하고 있다. 경제활력 제고의 핵심인 규제 개혁은 여전히 말만 무성할 뿐, 최근 상법 개정 등에서 보듯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올해 2.4% 성장률 목표도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 작년 성장률 2.0%를 지켰음에도, 정부지출이 민간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지 못한 한계가 계속 지적되는 이유다. 정부는 성장률 추락을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세계 교역 위축, 기업 투자심리 감소, 주력산업인 반도체 업황 약화의 탓으로 돌린다. 외부 변수의 영향이라는 주장인데, 우리 경제의 구조적 결함에 대한 진단과 대처가 결여돼 있다.

건강 100세 암 치료 후 식습관·생활습관 관리

현대인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질병이 바로 암이다. 이 때문에 암이란 질병에 대해 수많은 연구들이 끊임없이 진행돼 왔다. 그 결과 각 암의 종류나 진행 상황에 따른 표준 치료라는 것이 정립돼 시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표준 치료가 끝나면 정말 이제 우리는 암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암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혹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암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유전적 요인은 어쩔 수 없더라도 암 치료 후 잘못된 식습관, 생활습관을 교정하지 않은 채 다시 그대로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암이 발병할 수 있는 환경을 다시금 똑같이 제공하는 것은 동일 암의 재발뿐만 아니라 다른 암 종이 발생할 가능성도 차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암 치료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생활 속에서 관리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식단관리이다. 암 치료 과정에서 우리의 몸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체력

이 소모된다. 치료 종결 후 체력을 회복하고 유지하려면 균형 잡힌 식단을 꾸준히 섭취해야 한다. 고른 음식물 섭취뿐만 아니라 음식을 통한 섭취가 힘든 영양소의 경우 보조제를 통해 섭취하는 것도 필요하다.

생활 습관 측면에서는 적절한 수면시간과 운동시간이 필요하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충분한 수면시간은 우리 몸의 회복을 돕고 피로를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깨어 있는 시간에는 매일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처음에는 무리하지 않고 가볍게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몸이 회복돼 갈수록 운동 강도와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측면도 챙겨야 한다. 본인의 취향에 맞는 취미 활동을 찾아 꾸준히 활동하고, 암 환우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더 이상 나는 환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몸과 마음이 함께 극복돼 암으로부터 진정 벗어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조현욱 느루요양병원 병원장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24시간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2020

올해는 더 좋을 거예요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SK하이닉스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